

《芝峰類說》 文章部 唐詩評의 價値와 卷12 李商隱詩 評文의 明清箋注本과의 比較*

柳 晟 俊**

차 례

- I. 序
- II. 《芝峰類說》 文章部 唐詩 評文의 構成과 價値
- III. 《芝峰類說》 卷12 李商隱詩 評文의 明清代 箋注本과의 比較考察
- IV. 結語

I. 序

李暉光¹⁾과 《芝峰類說》에 대해서는 기존관련 자료가²⁾ 적지 않은 바, 朝鮮朝 詩話로서는 唐詩를 거론한 분량과 내용에 있어서 가장 방대하고 主見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李暉光이 尙大한 분량의 文獻이라 할 이 책을 저술한 根底에는 實學思想에 의한 實證的인 思考方式과 明朝에 대한 事大主義的 의식에서 벗어난 客觀的이며 獨自的인 詩文 評論姿勢, 그리고 朝鮮에 대

* 본 논문은 200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작성됨.

** 韓國外國語大學校 中國語科 bewitch12@hanmail.net

1) 李暉光(1563-1629), 字는 潤卿, 號는 芝峰, 諡號는 文簡, 本貫은 全州, 太宗의 子 敬寧君의 6世孫. 大司成, 弘文館 副提學, 洪州牧使, 都承旨, 工曹判書, 吏曹判書 등을 역임.

2) 《芝峰類說》에 관한 연구논문의 예로 문희순 「芝峰 李暉光의 審美批評 研究」(詩話學 제1집 p. 303-327, 1998. 8), 鄭健行 「芝峰類說中解杜諸條舉隅析評」(順天鄉人文科學論叢 6 p. 289-302, 1998. 8), 陳甲坤 「芝峰類說의 杜詩批評 研究」(어문논총 32 p. 159-178, 1998), 全英蘭 「李暉光의 杜詩 註釋에 대한 評析」(人文科學研究 제15집 p. 187-203, 1996. 12), 金周漢 「李暉光의 唐詩 小攷」(嶺南語文學 26 p. 1-7, 1994. 12) 등을 들 수 있다.

한 愛國愛族의인 주체의식이 있었다고 본다.³⁾ 이 책의 文章部를 중심으로 한 詩話的 성격을 지닌 부분의 記述이 다양하여 시기적으로는 唐詩구분 4시기를 포괄하고 있으며 그 대상 詩人과 詩도 唐詩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수광의 唐詩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넓고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수광은 박학한 저술을 펴면서도 매우 겸양하는 심회를 표현하고 있으니, 그의 《芝峰類說》 自序를 보면,

余以款啓劣識，何敢妄擬於述作之林，略記一二，以備遺忘，寔余志也。若事涉身怪者，一切不錄而於古人詩文，間或參以臆見，則固知僭越之甚，然非敢以己意爲是，惟具眼者擇焉。萬曆四十二年七月中澣李暉光書

나는 보잘 것 없는 지식으로 어찌 감히 망령되어 책을 저술하는 대열에 끼어 흉내 낼 수 있겠는가. 대략 한두 가지를 기록하여 잊지 않게 대비하려는 것이 진실로 나의 뜻이다. 일이 괴이한 것에 있어서는 일체 기록하지 않았고 옛 사람의 시문에 대해서는 간혹 나의 혼자 의견을 적어 놓았으니 본래 외람되고 지나친 일인 줄 안다. 그러나 감히 나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오직 안목을 갖춘 자가 가려줄 것이다. 만력 42년 7월 중순 이수광 쓰다.

라고 하여 서술을 위해 신중하면서도 사전 준비 작업을 오래 해온 심정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芝峰類說》 卷9에서 卷12까지의 文章部 부분 중 주로 唐詩와 관련된 評文을 集約하여 그 構成과 詩論的 價値를 概觀하고 아울러 卷12의 李商隱 詩에 대한 詩評文 26개 조를 성격구분하여 條別로 翻譯하고 明清代의 註釋本과 상호비교하여 李暉光의 論理가 如何하였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II. 《芝峰類說》 文章部 唐詩 評文의 構成과 價値

朝鮮 중엽 李暉光이 壬辰亂을 前後하여 일기 시작한 尊唐風에 따라서 등장한 李達, 白光勳, 崔慶昌 등 三唐派 시인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 시기에 지은 《芝峰類

3) 南晚星역 《芝峰類說》(上) 解題 p. 4-5(乙酉文化社 1976)

說》(1614)은 그 내용이 尠大하고 深度 있게 서술하고 있다. 《芝峰類說》은 10책 2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凡例에 의하면 記事數가 3435조, 인용 文集 348종, 記錄人名이 2265인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이다.⁴⁾ 그 중에 文章部는 卷8에서 卷14까지로서 그 대부분의 내용이 詩 批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장부 7권은 권8의 散文을 제외하고 전부 시를 중심으로 한 비평문으로서 韓國漢文學은 물론 中國文學의 상호 비교연구 차원에서 중시할만한 자료가 된다. 그 중에 唐詩評 부분을 보면, 卷9의 일부와 卷10의 唐詩, 卷11 唐詩, 卷12의 唐詩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수광이 唐詩 비평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卷9부터 卷12까지의 文章部에서 卷9의 詩에 대한 起源과 詩評, 그리고 詩法 등을 개관하고 卷10의 御製詩, 古樂府, 古詩, 唐詩 중에서 唐詩부분과 卷11의 初盛中唐詩, 卷12의 晚唐詩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기로 한다.

1. 卷9 文章部 三의 詩와 詩評, 詩法

李暉光이 자신의 詩論의 根據를 제시하는 부분이므로 唐詩를 포함한 시 전체의 논조를 살펴봄이 타당하리라 본다.

1) 詩

이수광은 시의 起源을 《大戴禮》의 기록을 인용하여 「황제의 樂을 운문이라 하고 악장을 시라고 한다. 우서에 말하기를, 詩는 뜻을 말한 것이고 歌는 말에 가락을 붙여서 말을 길게 한 것이다. 시의 이름이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다. (黃帝樂曰雲門, 樂章曰詩. 虞書云: 詩言志, 歌永言. 詩之名始此.)」라는 글로 시작하여 시의 형식 발달의 기원과 作詩의 정신자세, 그리고 작시의 語句學習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기로는 역시 唐詩에 역점을 주어서 推崇한 것은 정상적인 詩學意識에서 나온 관점이라 할 것이다. 먼저 시의 各體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에 서술하기를,

4) 凡例: 「爲說共三千四百三十五條, 初出於臆記, 隨得輒書, 而篇帙既夥, 始爲分類。」라 하고, 「所引書籍, 六經以下至近世小說諸集, 凡三百四十八家, 所錄人姓名, 自上古迄本朝, 得二千二百六十五人。」라고 함. 朴守川《芝峰類說 研究-文章部를 중심으로》 p. 177 서울대 박사논문 1993

古人云：五言起於李陵蘇武，七言起於漢武柏梁，四言起於漢韋孟，六言起於漢谷永，三言起於晉夏侯湛。或云：五言始於五子之歌，七言始於茅仙之謠。余謂五言如舜歌元首叢脞哉，七言如擊壤謠帝力何有於我哉。是也。至於詩三百篇中有五七四六三言，各體俱備。

옛사람이 말하기를, 오언은 이릉과 소무에서 기원하고, 칠언은 한 무제 백량체서 기원하고, 사언은 한 위맹에서 기원하며, 육언은 한 곡영에서 기원하고, 삼언은 하후담에서 기원한다. 후자는 말하기를, 오언이 오자의 노래에서 시작하고, 칠언이 모선의 가요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내가 말하노니 오언은 순임금의 노래 「왕이 줌스럽다」라고 한 것과 같고 칠언은 격양가의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엇이겠는가」와 같다. 그것이다. 시 삼백편에는 5, 7, 4, 6, 3언의 각체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라고 하여 상당히 정확한 근거에 의한 내용을 적고 있다. 여기서 중시해야 할 사항은 5언시의 기원인데 이수광의 기원근거는 鍾嶸의 《詩品》序에서 「逮漢李陵，始著五言之目。」(한대 이릉에 이르러서 비로소 오언의 이름을 마련했다.)라고 한 것과 任昉의 《文章緣起》에서는 「五言詩創於漢都騎尉李陵與蘇武詩。」(오언시가 한나라 도기위 이릉과 소무의 시에 창작되었다.)라고 한 자료에 두고 있어서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陸侃如가 오언시의 기원을 東漢 樂府詩에 근거하여 제시한 이론⁵⁾이나 李曰剛이 오언시를 古詩19수에 기원하고 있는 주장⁶⁾은 모두 近者에 거론한 記述인 점과 비교할 때, 이수광은 오언시뿐만 아니라 기타시의 기원도 상당한 근거에 의해 서술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作詩의 정신을 강조한 점인데 이수광은 嚴羽의 《滄浪詩話》詩辨의 興趣와 妙悟를 창작정신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니 이것은 청대 王士禎의 시론이 神韻說과 翁方綱의 肌理說, 그리고 袁枚의 性靈說 등과 연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시 宋明代의 문학에 조예가 있었던 이수광의 시학적 관념으로 보아서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수광은 嚴羽의 이론을 인용하여 興趣를 논하기를,

嚴儀曰：盛唐諸公惟在興趣，無跡可求，如空中之音，相中之色，水中之月，鏡中之象，可謂善形容矣。

5) 《中國詩史》 p. 264-270 章二 五言詩的起源(臺灣 明倫出版社 1969)

6) 《中國詩歌流變史》 p. 136-158(臺灣 文津出版社 1987)

엄의는 말하기를, 「성당 제공의 시는 오직 흥취에 있어서 찾을 수 있는 자취가 없으니, 마치 공중의 소리 같고, 얼굴의 색 같고, 물속의 달 같고, 거울 속의 사물 같다.」라 하였는데 잘 표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엄우의 興趣說에 동감하고, 이러한 의식이 滄浪의 妙悟論에 심취케 하는 과정을 밝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수광은 창랑의 妙悟의식을 따라서 창랑의 주장을 그대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嚴羽曰：禪道惟在妙悟，詩道亦在妙悟。惟悟乃爲本色，然悟有淺深，有分限，有透徹之悟。

엄우가 말하기를, 참선의 도리는 오직 묘오에 있으며 시의 도리도 묘오에 있다. 오직悟는 곧 근본바탕이 된다, 그러나悟에는 열고 깊음이 있고, 한계가 있으며 투철한悟가 있다.

여기서 엄우가 주장하는 詩와 禪과의 상관성, 그리고 妙悟의 현상을 작시정신에 접목시킨 점을 이수광은 수용하고 있다. 엄우의 詩와 禪과의 관계를 부연해 보면 《滄浪詩話》 詩辨에서 서술하기를,

①禪家者流，乘有大小，宗有南北，道有邪正，②學者須從最上乘，具正法眼，悟第一義也。③若小乘禪，聲聞辟支果，皆非正也。④論詩如論禪，漢魏晉與盛唐之詩，則第一義也。⑤大曆以還之詩，則小乘禪也，已落第二義也。晚唐之詩，則聲聞辟支果也。⑥學漢魏晉與盛唐詩者，臨濟下也。學大曆以還之詩者曹洞下也。⑦大抵禪道惟在妙悟，詩道亦在妙悟。且孟襄陽學力下韓退之遠甚，而其詩獨出退之之上者，一味妙悟而已。惟悟乃爲當行，乃爲本色。⑧然悟有淺深，有分限，有透徹之悟，有但得一知半解之悟。⑨漢魏尚矣，不假悟也。謝靈運至盛唐諸公，透徹之悟也，他雖有悟者，皆非第一義也。吾評之非僭也，韜之非妄也。天下有可廢之人，無可廢之言，詩道如是也。(번호와 밑줄은 편의상 부과한 것임)

①선가류에는 소대의 승이 있고 남북의 종이가 있으며 정사의 도가 있으니, ②학습자는 모름지기 최상의 승을 따라 바른 법안을 갖추어 제일의를 깨달아야 한다.③소승선이라면 성문승과 벽지승 따위인데 모두 바르지

7) 제일의는 불법의 第一義諦를 《傳燈錄》卷九에 「心卽是法，法卽是心，不可將心更求於心，歷千萬劫無得日，不如當下無心，便是本法。……故佛言，我於阿耨菩提實無所得，恐人不信，故引五眼

않다. ④시를 논함은 선을 논함과 같으니 한위진과 성당의 시가 즉 제일의 이다. ⑤대력 이후의 시는 즉 소승선이어서 이미 제이의로 떨어져 있다.⁸⁾ 만당의 시는 즉 성문과 벽지승류이다. ⑥한위진과 성당의 시를 배운 자는 임제종 무리와 같고 대력 이후의 시를 배운 자는 조동종 무리와 같다. ⑦ 대개 선도는 묘오에 있으니 시도 또한 묘오에 있는 것이다. 또한 맹양양(浩然)의 학력이 한퇴지(韓愈)보다 매우 떨어지지만, 그 시만은 퇴지 위에 빼어난 것은 오직 묘오를 맞보기 때문이다. 오직 오는 곧 마땅히 갈 길이요 본색이 되는 것이다. ⑧그러나 오는 얕고 깊음이 있고 한계가 있음에 따라 투철한 오와 단지 알아서 반쯤 깨우쳐지는 오가 있다.⁹⁾ ⑨한위는 존귀하나 가오가 아니며, 사령운에서 성당 여러 문인에 이르기까지는 투철한 오이다. 나머지는 오를 지녔다 해도 모두 제일의가 못된다. 내가 그를 비평해서 거짓되지 않고 변언해도 망령되지 않는다. 천하엔 버릴 사람과 버릴 수 없는 말이 있으니 시도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한 바, 여기서 엄우의 시론을 요약하면, 첫째는 「시를 논함은 선을 논함과 같음(論詩如論禪)」과 「시의 도는 묘오에 있음(詩道在妙悟)」이다. 창량이 시의 정신세계를 禪의 경지에 비유한 것은 이 시화의 서두에서 거론되어 있다. 만당의 司空圖를 추승하고 江西派 시인에게서 힌트를 받아 구체화시킨 이론이긴 해도¹⁰⁾ 창량에

所見，五語所言，眞實不虛，詩第一義諦。」

- 8) 제이의란 불법의 第一義諦에서 따온 제일의와 대칭하여 쓴 말인데, 여기서는 대력 이후의 묘오 하지 못한 시, 즉 소위 一知半解之悟를 지칭하는 용어.
- 9) 창량의 透徹之悟는 皎然의 《詩式》에서 근원하니 《詩式》의 「兩重意以上皆文外之旨，若遇高手如康樂公，覽而察之，但見情性，不觀文字，皆詣道之極也.」에서 문자를 떠난 정성의 극을 파악하는 것을 창량은 透徹之悟라 표현한 것 같다. 許學夷는 透徹之悟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初唐沈宋律詩，造詣雖鈍，而化機尚淺，亦非透徹之悟. 惟盛唐諸公領會神情，不做形迹，渾然而就，如僚之於丸，秋之於奕，孔孫之於劍舞，此方是透徹之悟也.」(《詩源辯體》).
- 10) 司空圖는 그의 기본사상을 南宗의 영향에서 이룩했음을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言不可無也，然爲師之說者，豈佐鏡而主勝乎. 儒之書曰率性之謂道，老之書曰名歸其根，而禪西之東，親扶人視聽，至而又至者，道與本俱忘哉.」(《司空表聖文集》卷九) 그리고 趙執信은 《二十四詩品》의 후세 영향을 평가기를 「觀其所第二十四品，設格甚寬，後人得以各從其所近，非第以不著一字，儘得風流爲極則也.」(《談龍錄》)라 함. 창량의 「答出繼叔臨安吳景仙書」의 첫머리에서 강서시파를 석평하려는 의도에서 본시화를 지었다고 하나, 실은 그 파의 영향을 입은 바 적지 않으니, 예컨대 韓駒(江西派)의 「詩道如佛道，分大乘小乘邪魔外道.」라든가 贈伯魚詩의 「學詩當如初學禪，未悟且遍參諸方. 一朝悟罷正法眼，信手帖出皆成章.」에서 알 수 있다. 창량의 答書一部를 보겠다. 「僕之詩辨，乃斷千百年公案，誠驚世絕俗之談，至當歸一之論，其間說江西詩病，眞取心肝劊子手. 以禪喻詩，莫此親切，是自家實證實悟者，是自家閉門鑿破此片田地，卽非傍人籬壁，捨人涕唾得來

이르러 이론으로 정립시켰다고 하겠다. 상기 인용문의 ①과 ②는 禪家의 상하류 구별과 禪理의 정점을 추구할 것을 밝히고 ④에서 詩와 禪의 同一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禪이 철학적, 종교적 신비성을 지녔다면 詩는 문학영역으로 性情의 表出에 근거하여 서로 屬性이 다르지만 感覺의 直觀을 중시한다는 면에서는 상통한다. 이런 관계를 郭紹虞는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다.

「以禪衡詩，則禪義與詩教，有關聯也有分別。僅見其異，則禪自禪而詩自詩，可以看作各不相入，當然難以并論。如見其通，則詩教禪義非同氷炭而類水乳，也不妨看作，更無矛盾。」(《滄浪詩話校釋》「詩辨」)

선으로 시를 조정하는데 곧 선의와 시교가 관련이 있으면서 분별이 있다. 단지 그 다른 것을 보면 선은 그 자체가 선이며 시는 그 자체가 시이어서 각기 경지에 들지 않음을 볼 수 있으나 당연히 같이 논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그 통함을 보면 시교와 선의가 같지 않음이 얼음과 석탄, 물과 젓과 같은데도 보는데 아무렇지 않아서 모순이 없다.

禪과 詩는 그 자체일 뿐 相入하거나 竝論되기 어려워서 얼음과 연탄(氷炭)이나 물과 젓(水乳)같이 다르나, 矛盾 없이 立論上的 地平이 가능한 것은 直觀 때문이다. 禪의 목적은 證悟 즉 悟得을 證驗함에 있는 것이지 理悟 즉 오득을 따짐에 있지 않다.¹¹⁾ 詩는 心地에 緣由하여 性情을 寫出할 때, 그 詩道는 바로 心得의 妙悟에 있는 것이며, 이는 佛道가 道得의 妙悟에 있는 것과 같다. 창량이 ②에서 第一義를 오득하기 위해서는 最上乘을 따라야만 가능하다 하고 ④에서 漢魏晉과 盛唐詩風을 그 예로 들었는데 여기에서 感性이 도달할 수 있는 정신의 昇化가 시와 선의 상통점으로 해명될 수 있다. 창량이 시의 고차원적 의식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선을 차입하여 비교해야 했다고 청대 袁枚는 해명하기도 하였다.¹²⁾ 창량이 그의 시화에

者，李杜復生，不易吾言矣。(《滄浪詩話》附)

11) 三祖僧璨《三祖中峯和尚信心銘》：「眞如法界，無自無他。要言相應，惟言不二，不二皆同，無不包容。…… 極小同大，忘絕境界，極大同小，不見邊表，有即是無，無即是有。」

12) 袁枚《隨園詩話》卷四：「白雲禪師作偈曰：蠅愛尋光紙上鑽，不能透處幾多難。忽然撞著來時路，始覺平生被眼滿。雪竇禪師作偈曰：一禿橫身當全路，蒼鷹見便生擒。後來獵犬無靈性，空向枯椿舊處尋。二偈雖禪語，頗合作詩之旨。」 그리고 청대의 張晉은 袁枚의 말을 뒷받침하여 다음과 같이 禪, 詩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少陵云：『妙取筌蹄棄，高宜百萬層。』又云：『意慳關飛動，篇終接混茫。』放翁云：『詩忌參死句，滄浪借禪喻詩。』謂如羚羊掛角，香象渡河，有神韻可味，無迹象

서 핵심의 하나로 내세운 것이 ⑦의 「禪道惟在妙悟, 詩道亦在妙悟.」(선도는 오직 묘오에 있고 시도도 묘오에 있다.)의 논리인데, 창량은 孟浩然을 韓愈보다 시의 妙悟란 면에서 시의 가치를 높게 본다는 例擧까지 하면서 이 점을 부각시켰다. 그의 詩辨 속에 妙悟와 관련된 부분은 ⑧과 「野狐外道, 蒙蔽其眞識, 不可救藥, 終不悟也.」(들여 우의 외도인 것이니, 그 참된 지식을 가리워 버리면 약을 구할 수 없어서 끝내 오를 얻지 못한다.)구, 「醞釀胸中, 久之自然悟入.」(가슴속에 뜬 들여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깨달아 든다.)구, 그리고 其妙處透徹玲瓏, 不可溘泊.」(그 묘한 곳은 꿰뚫어 영롱하여 모아 놓을 수 없다.)구 등이 되겠는데 詩道가 妙悟에 있다는 논법은 명대 胡應麟이 이미 悟를 통한 學詩를 역설하였다.¹³⁾

2) 詩法

모두 4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 體裁, 韻律, 平仄, 묘사상의 重疊, 對句 등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수광은 운율면에서 韓愈의 險韻을 거론하기를,

韓昌黎詩多押險韻, 殆不遺一字, 所以示奇也. 唯元和聖德詩雜用語御慶遇
駕箇馬禡有宥韻……亦猶兵家用奇, 奇正雜出, 乃所以奇也.

한유의 시는 險韻을 많이 사용하여 거의 한 글자도 빠지 않으니 기이함을 보이려는 것이다. 단지 원화성덕시만은 語·御·慶·遇·駕·箇·馬·禡·有·宥韻을 섞어 썼다. …… 또한 병가의 기병을 쓰는 것과 같으니 기습과 정공법이 섞여 나와서 기이함을 보인다.

라고 하였는데 이 논리는 고금의 定評으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예시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平仄면에서는 變格을 인정하면서 한편 문제시한 것을 보는데, 예컨대 拗體에 대해서,

王世貞以爲皆拗體. 以此言之, 今人知用字平仄之爲拗體, 而不知用律平仄之爲拗體也.

可尋. 司空圖謂超以象外, 得其環中, 皆言詩之超詣也. 隨園謂詩不必首首如是, 要不可不知此種意境. (《達觀堂詩話》)

13) 胡應麟《詩藪》內編卷二: 「禪必深造而後能悟, 詩雖悟後, 仍須深造.」

왕세정은 모두 요체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말하면, 지금 사람은 글자의 평측을 쓰는데 요체가 되는 것을 알지만 운율의 평측을 쓰는데 요체가 되는 것을 모른다.

라고 하여 요체의 근본적 활용법을 숙지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對句에 대해서는 扇對格을 거론하였는데 이것은 본래 嚴羽의 《滄浪詩話》에서¹⁴⁾ 처음 서술한 바, 제 1구 對 제3구, 제2구 對 제4구의 對偶를 말한다. 일명 隔句對, 開門對라고 하는데 이수광은 杜甫와 李白시를 인용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唐詩에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구형식으로 假借格도 거론한 바, 杜甫, 孟浩然, 庾肩吾의 시를 인용하여 그 기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격은 명대 俞弁이 처음 거론한 용어로서¹⁵⁾ 借對 혹은 假對라고 하여 대구에서 흔히 활용되는 것인데 외국인의 경우 그 기법을 숙지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다용하지 못한다.

3) 詩評

총 133개 조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수광은 여기서 시대별 시평가, 시의 비교, 그리고 이백과 두보의 시에서 단점을 지적하는 나름의 주관적인 견해와 비평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극히 단편적이며 상식적인 서술로 보이지만 시대별 詩風의 성격을 논한 부분을 보면,

詩三百篇古矣, 漢魏近古而質矣, 二晉質變而文矣. 梁陳文變而靡矣, 至于唐則彬彬矣, 宋則又變而衰矣.

시경 삼백 편은 예스럽고, 한위의 시는 옛 것에 가까우면서 질박하며, 서진과 동진은 질박한 것이 변하여 묘사가 아름답다. 육조시대의 양과 진나라는 묘사가 아름다움이 변하여 수식이 지나치고, 당나라에 이르러서 수식과 내용이 모두 뛰어나며, 송나라는 또한 변하여서 쇠퇴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그 성격부여에 있어서 「古, 質, 文, 靡, 彬彬, 衰」 등의 용어를 사

14) 《滄浪詩話》詩體: 「有扇對, 又謂之隔句對, 如鄭都官「昔年共照松溪影, 松折碑荒僧已無. 今日還思錦城事, 雪消花謝夢何如.」是也. 蓋以第一句對第三句, 第二句對第四句.」

15) 俞弁《逸老堂詩話》: 「天廚禁臠, 洪覺範著, 有琢句法中假借格.」

용한 표현은 매우 합당한 어휘선택으로서 《論語》의 「文質彬彬」(雍也 제16장)의 의미를 차용한 경우이다. 즉 古는 전통과 근본, 質은 불필요한 수식 없이 소박하고 사실적인 묘사, 文은 묘사상의 문학적인 수사기법의 優秀性, 그리고 靡는 소위 ‘華而不靡’의 世俗性, 彬彬은 내용과 묘사의 完整性, 衰는 文理에 傾倒된 文學性의 결여 등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이수광은 성당대의 서로 시풍이 다른 孟浩然과 杜甫의 시를 비교하기를,

孟浩然詩曰：江清月近人。杜子美云：江月去人只數尺。羅大經以爲浩然渾涵，子美精工。余謂子美此句大不及浩然。

맹호연 시에 이르기를, 강이 맑고 달은 사람에게 가깝다. 두보가 말하기를, 강 속의 달이 사람과 겨우 몇 자 떨어져 있네. 나대경은 맹호연 시는 함축적이며 두보의 시는 정교하다고 보았다. 나는 말하노니 두보의 이 시구는 맹호연에 크게 못 미친다.

라고 하여 杜甫 優位の 通念에서 평가상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수광이 李白과 杜甫의 시를 酷評한 부분은 그 當時로서는 근본을 부정하는 의식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평가자세이기 때문에 더욱 주시되는 점인데 그의 진솔한 다음 두 시인의 시에 대한 비평은 중국시화에서도 찾기 드문 매우 객관적이고 독자적인 서술이다.

*李白詩：李白鳳凰臺詩起結兩句全襲崔顥法，第二聯是尋常懷古語，且與五言詩「古殿吳花草，深宮晉綺羅。」同意，第三聯視晴川歷歷漢陽樹，太不牟矣。且既曰：江自流，而又曰：二水中分似疊。余妄謂李白此詩雖不作，可也。

이백의 봉황대시의 첫구와 끝구 두 구는 전부 최호의 구법을 따르고 있고 제2연은 일반적인 회고시의 어구로서 5언시의 「옛 궁전에는 오나라의 꽃이오, 깊은 궁궐엔 진나라의 비단이라네。」와 같은 뜻이고 제3연에서 「밝은 냇물엔 한양의 나무가 뚜렷하다」를 보면, 너무 다르다. 또 이미 「강은 절로 흐른다」와 「두 갈래 물이 가운데로 나뉜다」라 한 것은 중첩인 것 같다. 나는 헛되이 말하노니 이백의 이 시는 잘못 지었다고 해도 가할 것이다.

위의 글은 崔顥의 〈黃鶴樓〉와 李白의 〈登金陵鳳凰臺〉 두 시를 비교하여 논한 것으로 이백의 次韻詩로 알려져 있는데 이백 시의 단점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다. 淸대 王琦는 《李白詩箋注》(권21)에서 「李之擬崔, 鸚鵡取其格, 鳳凰取其調。」라고 하여 우열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수광은 등차를 두고 있으니 그 논평이 비교적 객관적이다.

*杜甫詩: 杜子美岳陽樓詩古今絕唱. 而「親朋無一字, 老病有孤舟。」與上句不屬, 且於岳陽樓不相稱.

두자미의 악양루시는 고금의 절창이다. 「친한 벗은 한 글자 소식이 없고 늘고 병들어 외로운 배만 있네.»는 윗구와 이어지지 않고 악양루와는 서로 맞지 않는다.

위의 글에서 제3연구가 시제와 상합하지 않고 제2연의 「乾坤日夜浮」(하늘과 땅이 밤낮 떠이있네)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제3연 즉 頸(轉)연의 성격상 시인 자신의 심경이 토로되는 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역시 명구라고 해야 할 것이며 이 점에서 이수광은 피상적인 관점만을 서술했다고 본다. 淸대 仇兆鰲의 《杜詩詳注》(권22)에서 「上四寫景, 下四言情。」(위의 4구는 경치를 묘사하고, 아래 4구는 정취를 말한다.)라고 서술한 것에서 ‘言情’의 의미와 상관시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구조오가 蔡秉敬의 《敬君詩話》를 인용하여 제3연을 「方見變化之妙」(마침 변화의 묘를 본다)라고 평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卷10 文章部 三의 唐詩 部分

총 10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바, 初唐詩와 盛唐詩의 일부를 서술하고 있다. 그 중요 시인의 量을 보면, 初唐四傑 10, 沈佺期和 宋之問 9, 李嶠 2, 劉希夷 1, 陳子昂 2, 孟浩然 3, 王維 13, 王昌齡 5, 李白 39, 李頎 1, 杜甫 2, 劉長卿 1 등 주요 시인을 대개 거론하고 있다. 이 중에 李白이 가장 중시되어 이미 上編에서 거론하였으니 이수광이 평가한 부분 중 독자적인 평가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이수광은 초당의 宋之問과 杜審言의 시구를 비교하기를,

宋之問傷曹娘詩曰：「獨憐脂粉氣，猶着舞衣中。」 杜審言傷美人詩：「應憐脂粉氣，猶着舞衣中。」 其中相犯而只換着一字不及宋矣。

송지문의 傷曹娘詩에 이르기를, 「홀로 연지와 분 기운이 아직 춤옷 속에 있음이 슬프다。」라고 하고 두심언의 傷美人詩에 「웅당 연지와 분 기운이 아직 춤옷 속에 있음을 슬퍼한다。」라 하니 그 중에 서로 범하여 단지 한 글자만을 바꾼 것인데 송지문만 못하다.

라고 하였는데 “서로 범했다” 함은 杜甫의 조부이며 文章四友인 杜審言이 宋之問시를 표절한 것이라는 의미이며 “송지문만 못하다” 함은 시 품격이 떨어진다는 뜻이 되는데, 이 점은 이수광이 충분한 고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王維의 <老將行> 시에서 ‘垂楊’ 시어를 풀이하기를,

王維老將行曰：「今日垂楊生左肘。」按莊子支離叔觀於冥伯之丘，俄而柳生其左肘。蓋用此也。但口義云：「柳，瘤也。」今日垂楊，恐未妥。頃世洪志誠乃謂左臂不收，如垂楊之無力也。蓋是臆見，可笑。

왕유의 노장행에 말하기를, 「오늘 수양버들이 왼쪽 팔꿈치에 돋았네。」라 하였다. 생각컨대 장자에 지리숙이 명백의 언덕을 보니 문득 버드나무가 왼 팔에 생겼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구의에 「버드나무는 혹이다。」라 하였으니 이제 수양버들이라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근세에 홍지성이 곧 왼 팔을 가누지 못함이 마치 수양버들이 늘어져 힘이 없음과 같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억측일 것이니 가소롭다.

라고 하였는데 왕유 시구는 《莊子》至樂篇에¹⁶⁾ 나오는 故事이며 버드나무(柳)를 혹(瘤)이라고 풀이한 것은 王先謙이 《莊子集解》에서 「瘤作柳聲，轉借字。」(瘤는 柳로 소리를 내니, 가차자이다.)¹⁷⁾라고 해석한 바, 올바른 풀이가 된다. 이수광이 거론한 수양버들(垂楊)과 버드나무(柳)가 같은 이름이니 여기서 타당치 않다는 것은 옳은 해석이고 洪志誠이 풀이한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아 이수광이 억설이라 한 것은 올바른 말이다.

16) 《莊子》至樂：「支離叔與滑介叔觀乎冥伯之丘，昆倉之墟，黃帝之所休，俄而柳生其左肘。」

17) 陳鐵民《王維集校注》卷2 p. 150 참고(中華書局)

3. 卷11 文章部 四의 唐詩

24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杜甫 59, 岑參 7, 韋應物 2, 韓愈 14, 元稹 4, 劉禹錫 6, 李賀 5, 張籍 4, 王建 18, 白居易 19, 杜牧 22, 張祜 2 개조 등 성당에서 만당까지의 시를 논술하고 있다. 그 서술의 예를 들면, 王建의 宮詞 제19수를 평가하기를,

王建宮詞曰：「樹頭樹底覓殘紅，一片西飛一片東。自是桃花貪結子，錯教人恨五更風。」余謂此詩蓋言宮人色衰失寵之意，似有所指而作也。

왕건의 궁사에 말하기를, 「나무 머리와 나무 바닥에서 남은 붉은 꽃을 찾으니 한 조각은 서쪽에 날고 한 조각은 동쪽에 나네. 이것은 복사꽃이 열매 맺기 탐내는 것이어늘 잘못 사람으로 오경의 바람을 한탄케 하네. 나는 말하노니 이 시는 아마도 궁인의 안색이 총애를 잃었다는 뜻이리니 가리키는 것이 있어서 지은 것 같다.

위에서 이수광이 평한 내용은 궁인의 안색이 쇠하여 왕의 총애를 잃은 것을 읊었다고 하였는데 중국의 자료에 의하면 《唐詩摘鈔》에서 「語兼比興，宮人必有先幸而後棄者，故用此體影其事。」(어사가 비흥을 겸하고 있으니 궁인이 반드시 전에는 총애를 받았으나 후에는 버림받으매 고로 이런 체를 써서 그 일을 그린 것이다.)라고 하여 이수광의 견해와 상통한다. 그리고 張祜의 〈何滿子〉시를 평가기를,

張祜詩曰：「故國三千里，深宮二十年。一聲何滿子，雙淚落君前。」按唐武宗疾篤，孟才子以歌笙密侍左右，上目之曰：「吾當不諱，爾何爲哉。」才子泣曰：「請就死。」乃歌一聲何滿子，氣亟立殞。詩語蓋紀此事也。何滿子樂府曲名，本人名也。

장호시에 말하기를, 「고국을 삼천리 떠나서 깊은 궁궐에 이십년이라. 하만자 한 곡조를 부르니 두 줄기 눈물이 임금 앞에 떨어지네.」 생각건대 당대 무종이 질병이 위독하매 맹재자가 노래와 생황으로 좌우로 가까이 모시니 왕이 눈짓하여 말하기를, 「나는 피하지 못할지니 그대는 어찌 하겠느냐.」 하니 재인이 흐느끼며 말하기를, 「죽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에 하만자 한 곡을 부르니 기가 다하여 곧 죽었다. 시어는 대개 이 일을 기록한

것이다. 하만자는 악부곡명이니 본래 사람 이름이다.

위에서 何滿子의 고사를 설명하였는데 하만자는 宮詞로서 궁녀가 고향을 그리며 총애를 얻지 못한 원한을 읊은 것이다. 郭茂倩의 《樂府詩集》 권18에¹⁸⁾ 보면, 開元 년간에 죄를 면하려고 이 곡을 불렀으나 면치 못했다고 기록하고 舞曲이라고도 하였다. 송대 尤袤의 《全唐詩話》에는¹⁹⁾ 이수광과 같은 내용의 서술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견해는 아니지만 고사 기록이 정확하다.

4. 卷12 文章部 五의 唐詩 부분

78개 조의 晚唐詩로 구성하여 李商隱 26, 許渾 4, 劉言史 1, 溫庭筠 3, 李頻 1, 皮日休 2, 來鵬 1, 李涉 1, 陳羽 1, 趙嘏 1, 李群玉 1, 李遠 2, 施肩吾 1, 裴思謙 1, 韓翃 1, 任翻 1, 陸龜蒙 4, 李山甫 3, 韓偓 2, 黃巢 1, 吳融 1, 張泌 1, 杜荀鶴 2, 羅隱 1, 葉少蘊 1, 聶夷中 1, 杜常 1 개조(卷11 唐詩 부분에서 杜牧 22, 張祜 2, 章孝標 1, 鄭谷 1 개조 등 수록) 등 다수의 시인 시평을 가하고 있는데 盛中唐詩에 비해 그 비중이 약한 것은 이수광의 시론의식상 嚴羽의 논조를 추종한 데에서 비롯된다. 晚唐詩의 예로 吳融의 시구에 대해서 평한 것을 보면,

吳融詩云：「子山詞賦莫興哀。」子山，庾信字，有哀江南賦，故云。又王荊公詩：風塵愁殺庾蘭成。按蘭成，庾信小字。哀江南賦，所謂王子洛濱之歲，蘭成射策之年。是也。

오융의 시에 말하기를, 자산의 사부는 더없이 슬픔을 자아낸다. 자산은 유신의 자이며 애강남부가 있어서 그러므로 말한 것이다. 또 왕형공의 시에 험한 세상의 전쟁이 유난성을 근심케 한다고 하였다. 생각하건대 난성은 유신의 어릴 적 자이다. 애강남부에 소위 왕자가 낙빈에 있던 해가 난성이 사책으로 과거하던 해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18) 《樂府詩集》卷18：「唐白居易曰：何滿子，開元中滄州歌者，臨刑進此曲而贖死，竟不得死。」

19) 《全唐詩話》：「祐所作宮詞，傳入宮禁。武宗疾篤，目孟才人曰：吾即不諱，爾何爲哉。才人指笙囊曰：請以此就絃。上惻然。復曰：妾嘗藝歌，請對歌一曲以泄其憤。上許，乃歌一聲何滿子，氣亟立殞。上令醫候之，曰：脈尚溫而腸已斷。」

위의 吳融(?-903)의 시구는 〈彭門用兵後經汴路〉(《全唐詩》 卷684)시 중 제1수의 末句로서 《東岩草堂評訂唐詩鼓吹》에는 이 시를 「借子山翻案作結, 正形其哀之甚耳。」(자산을 빌려서 개작하여 매듭을 지으니 정말 그 매우 슬픈 심정을 묘사한 것일 따름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오융의 시는 《唐才子傳》에 의하면 「富辭調, 工捷. ……爲詩靡麗有餘, 而雅重不足。」(사조가 풍부하고 기교에 능하다. ……시를 지음이 너무 화려하여 고아하고 진중함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賀裳은 《載酒園詩話又編》에서 「雖品格不高, 思路頗細, 兼有情致。」(품격이 높지 않으나 생각이 자못 섬세하며 정취가 있다.)라고 그 풍격을 평가하여 韓偓의 香奩體의 晚唐氣風²⁰⁾을 지닌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수광이 오융의 시구를 당말기와 시대풍조가 유사한 六朝 혼란기의 庾信의 感情과 相比하여 이해하려 한 것은 객관성이 있다.

III. 《芝峰類說》 卷12 李商隱詩 評文의 明淸代 箋注本과의 比較考察

《芝峰類說》 卷12 文章部는 唐詩(晚唐詩)와 宋元明詩의 評文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서 李商隱 시는 모두 26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詩評 내용상 典故解析, 詩語의 考證, 그리고 詩 자체에 대한 분석 등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朝鮮 中期의 문단이 李達 등 三唐詩人을 중심으로 盛唐詩와 嚴羽의 시론이 유행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수광이 唐詩 평가에서 杜甫와 李白 다음으로 晚唐의 李商隱시를 비중 있게 서술하였는데 먼저 그 26개조의 評文 요지를 보기로 한다.

條別	詩題	要旨
1	漢宮詞	羅大經의 漢武帝에 대한 평을 지적하고 재해석
2	漢宮詞	'靑雀'의 고사를 구명
3	茂陵	'蒲梢'는 명마명인데 지명으로 잘못 쓴 것을 지적
4	渾河中	'養馬'의 고사를 서술
5	嫦娥	궁녀의 원망이나 규방의 심정으로 풀이

20) 《唐音癸簽》: 「唐七言律……至吳融, 韓偓, 香奩脂粉。」

- | | | |
|----|----------------------------|-------------------------------------|
| 6 | 隋宮 | 시구의 재해석과 수대의 멸망으로 풀이 |
| 7 | 茂陵 | 한무제의 아교풀 고사와 그 시의 해석 |
| 8 | 樂游原 | 양만리의 국망을 비유함에 대해 단순한 경치로 해석 |
| 9 | 籌筆驛 | ‘儲胥’의 풀이 |
| 10 | 籌筆驛 | ‘傳車’의 用處 |
| 11 | 促漏 | 시의는 궁녀의 원망, 시어 ‘文’자를 ‘雲’으로 쓰면 가함. |
| 12 | 漢南書事 | 시어 ‘白雲杯’와 ‘好生’의 해석 |
| 13 | 咸陽 | 秦穆公의 꿈 고사 |
| 14 | 茂陵 | 楊愼의 ‘瑤池宴’ 설명을 부정하고 시어 ‘玉桃’의 분석 |
| 15 | 碧城 | ‘辟寒玉’이 아니라 ‘辟寒金’이 옳다는 시어 해석 |
| 16 | 槿花 | 시어 ‘月裏姝’와 ‘雲中君’을 槿花에 비유로 풀이 |
| 17 | 公子 | 시어 ‘新羅酒’의 해석 |
| 18 | 無題 | 시어 ‘小姑’의 풀이 |
| 19 | 撰彭陽公誌文畢有感 | 시어 ‘生金’의 어원 밝힘 |
| 20 | 柳枝 | 시어 ‘彈碁’의 유래 설명 |
| 21 | 賈生 | 시어 ‘可憐’을 ‘如何’로 쓰면 가하다는 의견 |
| 22 | 王十二兄與畏之員外相訪見招小飲時余以悼亡日近不去因寄 | 시어 ‘檀郎’의 의미와 유래의 해석 |
| 23 | 錦瑟 | 詩意 설명과 錦瑟은 인명 |
| 24 | 魏侯第東北樓堂邱叔言別聊用書所見成篇 | 시어 ‘屈戌’와 ‘崑崙’의 의미 분석 |
| 25 | 聽鼓 | 시어 ‘漁陽欸’의 欸에 대한 해석 |
| 26 | 石城 | 시어 ‘氷’자를 陳與義와 黃庭堅의 시구를 인용하며 去聲으로 풀이 |

상기 시의 각종 평문을 종합하면 이수광이 이상은 시 22수를 26개조로 품평하여 대개 시어의 고증과 전고, 그리고 詩와 詩句의 解釋, 詩題의 淵源 등 다양하게 논술하고 있는데, 그 관점이 精密하고 根據爲主인 점에서 높이 評價할 수 있지만 不

充分한 자료에 의거한 誤謬도 간과할 수 없다. 다만 評語 내용상 그 서술방법이 根據提示를 통하여 客觀性을 유지하려고 한 점에서 주목되고 작자 나름의 獨自의인 견해를 記述한 점도 가치가 있다. 그리고 “明清箋注本”이란 주로 明代와 清代의 여러 注釋本과 明詩話와 淸詩話 등 詩評書를 포괄해서 붙인 명칭이다.

1. 詩語의 根據와 辯證

이수광이 이상은 시의 시어를 분석한 부분은 상기 26 개조에서 제3, 9, 10, 11, 12~19, 22, 24, 25, 26 조 등 15개 항목으로서 이들 原文을 인용하면서 차례로 고찰하기로 한다.

*제3조— 李義山詩: 「漢家天馬出蒲梢。」按漢書西域志: 「孝武之世, 蒲梢龍文魚目汗血之馬, 充於黃門。」注: 大宛馬, 魚目龍文鳳頭尾如蒲梢。此詩乃以蒲梢爲地名, 則謬矣。

이의산 시에 「한나라의 천마는 출포에서 나왔네。」라고 하였다. 《한서》서역지에 의하면, 「효무 때에 포초와 용무늬, 물고기 눈, 피땀의 말이 궁궐문에 가득하다。」라고 하였다. 주에 「대완마는 물고기의 눈, 용의 무늬, 봉황새의 머리와 꼬리는 부들 줄기 같다。」고 하였다. 이 시에서 곧 포초를 지명으로 한 것은 틀린 것이다.

*제14조— 楊慎曰: 「李義山詩『瑤池宴罷留王母, 金屋粧成貯阿嬌。』俗本作玉桃偷得憐方朔, 眞似小兒語耳。」余謂瑤池宴乃周穆王事, 而語句亦不佳。楊說恐未是。但其曰: 玉桃乃強對未穩, 又金屋粧成一本作修成。

양신이 말하기를, 「이의산 시에 「요지의 연회가 끝나고 서왕모가 머무니 금옥을 장식하여 미인 아교를 기르네。」 세속 책에는 옥복승아를 훔치니 동방삭이 가엽도다한테 정말 어린애의 말과 같다。」내가 말하건대 요지의 연회는 곧 주몽왕의 일로서 어구가 역시 아름답지 않다. 양신의 설이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옥복승아는 바로 억지로 대구한 것으로서 타당치 않다. 또 금옥으로 단장하여 꾸민다(粧成)를 고쳐 만들다(修成)로 하고 있다.

상기 2개조는 〈茂陵〉시(《李商隱詩歌集解》²¹⁾ p. 607)의 첫구와 제3연을 인

용하여 시어분석을 한 부분이다. 이 시는 漢武帝의 陵을 빌려서 唐武宗을 哀哭하며 遊獵과 寵愛의 일을 풍자한 것으로²²⁾ 먼저 제3조를 보면 이상은이 '蒲梢'를 지명으로 작시한 것은 옳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 근거를 《漢書》西域志에 두고 있는데 '茂陵'은 漢武帝의 陵으로 長安서북에 있다. 清代 朱鶴齡은 「武帝伐大宛, 得千里馬, 名曰蒲梢, 作天馬之歌.」(무제가 대원을 쳐서 천리마를 얻어 이름을 포초라 하고 천마지가를 지었다.)(《李義山詩集箋注》)라 하여 '蒲梢'가 馬名인 것을 밝혀서 이수광과 同意解釋하였고 清代 何焯은 「言蒲梢乃天馬之子, 出字無病.」(포초는 곧 천마의 새끼를 말하니 出자는 잘못이 없다.)²³⁾라고 하여 역시 馬名은 同意이나 '出'의 의미를 출산지가 아니고 명마 포초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시대적으로 보아 이수광과 같은 해석이 없었고 清代에 와서 같은 주석이 있는 점에서 이수광의 설이 初釋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제14조를 보면, 이수광은 명대 楊慎의 《升庵詩話》 문구를 부정하고 이 시의 제5구를 《全唐詩》(권540)와 상기 集解본의 「玉桃偷得憐方朔」 구를 맞다고 주장한 것은 정확한 평가로 본다. '瑤池宴'은 周穆王의 고사로서 漢武帝와는 무관하며 西王母와의 '玉桃' 고사는 武帝故事²⁴⁾에 기록된 것이므로 이의가 없다. 그리고 제6구의 '粧成'을 '修成'으로 작시한 부분은 《全唐詩》와 集解본에 역시 '修成'으로 기록하고 있고 朱鶴齡注本과 季滄葦抄本²⁵⁾에는 '粧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판본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 제9조 李義山詩: 「風雲長爲護儲胥.」按風雲八陣法也. 長楊賦: 「木擁槍櫓, 以爲儲胥.」註軍中藩籬也. 又莊子「削格羅落」註削格猶漢書曰儲胥, 若今之木柵也.

- 21) 劉學鍇, 余恕誠《李商隱詩歌集解》(中華書局 1998) 增訂重排本 全五冊의 수록순서에 의함. 〈武陵〉: 「漢家天馬出蒲梢, 苜蓿榴花徧近郊. 內苑只知含鳳鶩, 屬車無復挿雞翹. 玉桃偷得憐方朔, 金屋修成貯阿嬌. 誰料蘇卿老歸國, 武陵松柏雨蕭蕭.」
- 22) 朱鶴齡《李義山詩集箋注》: 「武宗遊獵及武戲, 親受道士趙歸眞法錄, 又深寵王才人, 欲立爲后. 此詩全是託諷.」
- 23) 何焯注本은 清代 沈厚堃이 何焯, 朱彝尊, 紀昀 三家의 評箋을 合輯한 《李義山詩集輯評》.
- 24) 《漢武故事》: 「東君獻短人曰巨靈, 指東方朔謂上曰: 王母種桃三千年一著子, 此兒不食, 三過偷之矣.」
- 25) 朱鶴齡《李義山詩集箋注》, 季滄葦《李商隱詩集抄本》

이의산 시에 「풍운이 오래 울타리를 지키네.」 내 생각으로는 풍운팔진 법이다. 장양부에 「나무로 창과 칼자루장식을 감싸는 것을 儲胥(저서; 울타리)라 한다.」 주석에 군대의 울타리라 하였다. 또 장자의 「削格羅落(울타리)」의 주석에 削格은 漢書의 儲胥와 같다라 하니 지금의 목책이다.

*제10조 李義山籌筆驛詩: 「終見降王走傳車.」按三國志後主出降, 舉家傳送洛陽. 其曰: 傳車此也. 李東陽五丈原詞云: 「侯歸上天, 多舊伍, 羽爲前驅, 飛後拒. 忠魂不逐降王車, 長衛英孫, 朝烈祖.」意尤好矣.

이의산의 주필역시에 「마침내 항복한 왕이 역참의 수레(傳車)로 도망가는 걸 보네.」 내 생각으로는 삼국지에 후주가 나와 항복하니, 온 가족을 낙양으로 전송하였다. 말하노니, 傳車가 이것이다. 이동양의 오장원사에 이르기를, 「제갈무후가 하늘에 오르니, 옛 군대가 많아서 관우가 앞에서 인도하고, 장비가 뒤에서 막아주네. 충성어린 영혼이 항복한 왕의 수레를 따르지 않고 길이 영웅을」 호위하여 열조에 조회하네.」 뜻이 매우 좋다.

상기 2개조의 시구는 諸葛亮의 일을 회고하여 비상한 심정을 적은²⁶⁾ 〈籌筆驛〉시(《李商隱詩歌集解》p. 1472)²⁷⁾의 제2구와 제4구로서 각각 시어 '儲胥'와 '傳車'의 用例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儲胥'를 보면 籌筆驛은 諸葛亮이 주둔했던 산세가 험해서 猿鳥조차 근접하기 어려운 지역이어서²⁸⁾ 적절한 표현으로 본다. 이 시어의 연원을 이수광과 朱鶴齡이 모두 揚雄의 〈長楊賦〉에서 찾았고 청대 馮浩가 주석하기를 「韋昭曰: 儲胥, 蕃落之類.」(위소가 말하기를 儲胥는 울타리의 종류이다.) (《玉谿生詩集箋注》)라고 한 것은 이수광의 주석과 상통한다. 이수광이 '風雲'을 古軍陣法의 하나로 풀이한 것은 明清은 물론 前代에도 없는 신해석이다.

'傳車'는 驛站의 수레인데 그 시어 연원을 《史記》遊俠傳과 《漢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수광은 명대 李東陽의 詞를 인용하여 시어활용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이수광이 자신의 견해라 하여 《三國志》를 거론한 것은 《蜀志》의 기록을 요약한 부분으로 馮浩도 동일한 주석을 하여 객관성이 있다.²⁹⁾

26) 《唐詩鼓吹評注》: 「此追憶武侯之事而傷之也.」周珉《唐詩選脈箋釋會通評林》: 「此追憶武侯而深致感傷之意.」

27) 〈籌筆驛〉: 「猿鳥猶疑畏簡書, 風雲長爲護儲胥. 徒令上將揮神筆, 終見降王走傳車. 管樂有才眞不忝, 關張無命欲何如. 他年錦里經祠廟, 梁甫吟成恨有餘.」

28) 朱鶴齡注: 「方輿勝覽: 籌筆驛在綿州綿谷縣北九十里, 蜀諸葛武侯出師, 嘗駐軍籌畫於此.」

*제11조 李義山促漏詩蓋宮怨之作也. 其一聯曰: 「歸去定知還向月, 夢來何處更爲文。」 文字作雲字似是.

이의산의 촉루시는 대개 궁녀의 원한을 담은 시이다. 그 한 연에 이르기를, 「돌아가면 반드시 달을 향해 돌아올 줄 아나니, 꿈에선 어디에서 다시 구름이 될까.」 文자는 雲자로 씀이 옳을 것 같다.

상기 〈促漏詩〉³⁰⁾ 제6구의 ‘文’자를 ‘雲’자로 쓰는 것이 옳을듯하다는 견해를 적고 있다. 이수광은 시의 주제를 宮女の 怨恨을 토로한 시로 보았는데 明清代의 注本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궁녀의 恨으로 보는 설로는 명대 郝天挺의 「此篇擬深宮怨女, 恨不如禽鳥猶有匹也.」(이 시는 깊은 궁궐의 원한 맺힌 여인을 비의한 것으로 새들이 오히려 짝이 있는데 그만 못한 것을 한하고 있다.)(《唐詩鼓吹注》), 高棟의 「此詩擬深宮怨女而作.」(이 시는 깊은 궁궐의 원한 맺힌 여인을 비의하여 지었다.)(《唐詩品彙》), 胡以梅의 「代宮人吟怨曠也.」(궁인을 대신하여 홀로 된 슬픔을 읊었다.)(《唐詩貫珠串釋》) 등 구는 이수광과 同意이나, 청대 陸崑曾의 「此亦義山悼亡詩也.」(이것은 또한 의산의 도망시이다.)(《李義山詩解》), 姚培謙의 「此亦是悼亡之作.」(이것은 또한 도망의 작품이다.)(《李義山詩集箋注》), 王鳴盛的 「羨他人之得意, 傷己之孤獨.」(남의 득의함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고독을 상심한다.)(《蛾術編》) 등은 이 시를 悼亡詩 또는 단순히 傷心의 작으로 보고 있어서 兩說이 紛紛하다. 필자는 단순히 深閨의 離情을 묘사한 시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 시 제2구의 ‘報章’은 書信을 지칭하지 章奏가 아니며 시 전체의 情景이 宮禁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제2연은 孤居無聊한 정경을 묘사하고, 말연은 鴛鴦의 雙宿을 부러워하니 悼亡氣가 없다. 文자와 雲자의 의견은 《全唐詩》와 기타주본 등 明清本에 모두 雲자로 표기되어 있어서 문자의 이견은 없으니 이수광이 文淵閣本 이전 문집에 의한 견해로 보아 이수광의 고증이 탁월함을 인지한다.

*제12조 義山詩云: 陛下好生千萬壽, 玉樓長御白雲杯. 白雲杯疑用王母

29) 馮浩《玉谿生詩集箋注》: 「蜀志: 鄧艾至城北, 後主與欄詣軍壘門, 艾解縛焚欄. 後主舉家東遷至洛陽.」

30) 〈促漏〉: 「促漏遙鐘動靜聞, 報章重疊杳難分. 舞鸞鏡匣收殘黛, 睡鴨香鑪換夕熏. 歸去定知還向月, 夢來何處更爲雲. 南塘漸暖蒲堪結, 兩兩鴛鴦護水紋.」

瑤池宴事也。王荊公宿寶林寺詩曰：共盡白雲杯。註曰：白雲謂茶也。似與此不同好生。蓋書所謂好生之德也。又語錄好生猶言十分極盡也。或疑用語錄耳。

의산 시에 이르기를, 「폐하는 자애로워 천년만년 장수할지니, 옥루에서 길이 백운 술잔을 드네.」 백운 술잔은 서왕모의 요지연회의 일을 인용한가 한다. 왕형공의 宿寶林寺시에 말하기를, 「함께 백운의 술잔을 다하네.」 주석에 이르기를, 백운은 차를 말한다하니, 여기와는 같지 않은 것 같다. 대개 書經의 이른바 자애심이 많아서 살생을 하지 않는 덕 즉 好生之德일 것이다. 또 어록에 「好生은 대단히 극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혹시 어록을 인용한 것인가 한다.

이 시구는 〈漢南書事〉³¹⁾의 말연으로서 이상은이 大中 2년 西羌인 党項을 토벌하는 일을 회상하며 漢南 즉 襄陽에서 지은 시이다. 이수광이 '好生'을 《書經》에 근거한 것은 馮浩가 주석한 「書;好生之德, 洽於民心. 稱觥上壽, 本詩邇風.」(서경에, 자애로운 덕은 민심에 찬다. 뽕술잔 들어 만수를 비니 이 시는 빈풍이다.)(《玉谿生詩集箋注》)와 같고 '白雲杯'를 瑤池宴과 연관시킨 부분도 정확한 해석이다. '玉樓'는 崑崙山에 있는 神仙의 居處이며 '白雲杯'는 仙家에서 사용하는 酒杯이기 때문이다.³²⁾

*제15조 義山詩: 「犀辟塵埃玉辟寒.」 按詩話: 魏明帝宮人取辟寒金, 爲釵鈿. 故時語曰: 不服辟寒金, 那得帝王心云. 而無所謂辟寒玉者, 蓋義山以金爲玉耳.

의산시에 「무소뽕은 먼지를 피하고 옥은 추위를 피한다.」 내 생각으로 시화에 위명제의 궁녀가 피한금을 취하여 비녀를 만들었다. 따라서 그 때 사람이 말하기를, 「피한금을 쓰지 않고 어찌 제왕의 마음을 얻겠는가?」라 하였다. 소위 피한옥은 없으니 대개 의산이 금을 옥으로 하였을 뿐이다.

〈碧城〉 3수중 제1수³³⁾ 제2구의 '玉辟寒'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시의 주

31) 〈漢南書事〉: 「西師萬衆幾時迴, 哀痛天書近已裁. 文史何曾重刀筆, 將軍猶自舞輪臺. 幾時拓土成王道, 從古窮兵是禍胎. 陛下好生千萬壽, 玉樓長御白雲杯.」

32) 馮浩《玉谿生詩集箋注》: 「玉樓在崑崙, 白雲亦仙事, 卽瑤池宴飲之義.」 《李商隱詩歌集解》 p. 880: 「玉樓, 指神仙居處. 白雲杯, 仙家所用酒杯.」

33) 〈碧城〉: 「碧城十二曲難覓, 犀辟塵埃玉辟寒. 閨苑有書多附鶴, 女牀無樹不棲鸞. 星沈海底當窓

제에 대해서 여러 설이³⁴⁾ 있지만, 대개 楊貴妃의 入道를 묘사한 것으로 해설하니 제1구 「碧城十二曲欄干」(벽성은 열둘 구비 난간이다)에서 '碧城'은 道觀을 지칭하고 있고 이 시는 首句 碧城 2자로 詩題를 삼은 바 無題詩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³⁵⁾ 이상은 시구의 '犀辟塵'은 道觀의 淨潔과 華美함을 유지하기 위한 의미이고³⁶⁾ '玉辟寒'에서 '辟寒'이란 있는 곳을 옮기어 추위를 피하는 뜻이므로 '玉辟寒'이 歡愛溫暖한 곳을 암시한다고 본다면 '玉'이든 '金'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金'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이수광의 견해는 매우 치밀하니 명청대에 이를 거론한 자가 없다.

* 제16조 李商隱 槿花詩曰:「月裡那無姊, 雲中亦有君。」意甚難解。余謂月裡姊疑指姮娥, 且楚辭九歌有雲中君, 註雲神也。蓋槿花色白, 故取以譬之, 恐無別意。

이상은의 근화시에 말하기를, 「달 속에 어찌 누이가 없으리오, 구름 속에 또 그대가 있네.」 뜻이 매우 난해하다. 나는 말하노니 달 속의 누이는 항아를 가리키는 것 같고 또한 楚辭 九歌에 雲中君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구름신(운신)으로 주석한다. 대개 근화의 색은 희어서 가져다가 비유한 것이 아마도 별 뜻은 없을 것이다.

이수광은 〈槿花〉시를³⁷⁾ 姮娥와 雲中君에 비유한 것이 꽃이 희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면서 단순한 詠物詩로 보는데 명청대 賀裳과 朱彝尊은 寓意詩, 托興詩로³⁸⁾ 평가하고 있다. 道觀의 女冠을 비유하여 仙女라든가 仙品の 이미지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朱彝尊은 「下句四句以仙女比之.」(아래 네 구는 선녀로 비유한다.) (《李義山詩集輯評》)라 하고 賀裳은 「故引月姊雲君, 以仙島離群結之, 見是天所謫

見, 雨過河源隔座看, 若是曉珠明又定, 一生長對水精盤。」

34) 胡震亨: 「此似咏其時貴主事.」(《唐音戊籤》), 朱鶴齡: 「義山詩往往借仙境作艷語.」(《曝書亭集》卷55), 陸崑曾: 「疑此三詩爲太眞沒後, 明皇命方士求致其神而作也.」(《李義山詩解》), 施補華: 「碧城諸詩, 似說楊妃事, 而語特含渾.」(《峴唐說詩》), 翁方綱: 「義山碧城三首, 或謂咏其時貴主事.」(《石洲詩話》)

35) 屈復《玉谿生詩意》: 「此詩因首句碧城二字遂以爲題……與無題同.」

36) 馮浩《玉谿生詩集箋注》: 「述異記: 却塵犀, 海獸也, 然其角辟塵, 致之於座, 塵埃不入.」

37) 李商隱〈槿花詩〉: 「燕體傷風力, 雞香積露文. 殷鮮一相雜, 啼笑兩難分. 月裏那無姊, 雲中亦有君. 三清與仙島, 何事亦離群.」

38) 馮浩: 「月中雲中, 皆不忘人之得入, 何三清仙島必以屏棄他人爲快耶? 此其寓意矣.」(《玉谿生詩集箋注》) 朱彝尊: 「次首絕無題意, 疑其亦歎是托興, 非詠物也.」(《輯評》)

降者。」(고로 月姊, 雲君을 인용하고 仙島, 離群으로 맺으니 하늘이 내려 보낸 것으로 본다.)(《載酒園詩話又編》)라 하며 청대 屈復은 5, 6구는 「五六比其仙品合在上界, 而今乃離群人世, 那字亦字有人已離群之感.」(그 仙品이 上界에 합한 것을 비유하니 지금 곧 속세를 떠난 것이며 那자와 亦자는 사람이 이미 무리를 떠난 감흥을 지닌다.)(《玉谿生詩意》)라고 평하고 있는데 수용할 만하다.

*제17조 李商隱公子詩曰:「一盞新羅酒, 凌晨恐易銷.」蓋唐詩以新羅酒爲貴耳. 按西陽雜俎酒食篇有樂浪酒法, 所謂新羅酒疑亦用其法造酒也.

이상은의 公子詩에 말하기를, 「한 잔의 신라주가 새벽에 쉬어 사라질까 두렵구나.」 대개 당시에서 신라주를 귀히 여겼다. 내 생각으로는 《유양잡조》 주식편에 낙랑주법이 있는데 소위 신라주도 그 법을 사용하여 술을 만든 것인가 한다.

〈公子〉 39)제1연의 '新羅酒'에 대해서 풀이한 것이 적절하다. 朱鶴齡은 通考의 「高麗無秫, 以稭爲酒.」(고려에는 차조가 없어서 매벼로 술을 만든다.)구를 인용하면서 「新羅酒當卽此也.」(신라주는 응당 이것이다.)(《李義山詩集箋注》)라고 주석하여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馮浩는 「新羅, 謂新漉. 袁山松酒賦: 織羅輕布, 浮蟻競升. 舊引東夷新羅國, 謬矣.」(신라는 새로이 술을 거르는 것을 말한다. 원산송의 酒賦에 고운 비단의 가벼운 무명에 술거품이 다투어 떠오른다. 옛날 동이 신라국을 인용한 것은 틀린 것이다.)(《玉谿生詩集箋注》)라고 기술하고 있어 그 황당한 해석을 본다.

*제18조 李義山詩:「神女生涯元是夢, 小姑居處本無郎.」按小姑蔣子文妹也. 古樂府小姑曲云: 小姑所居獨處無郎, 此也.

이의산 시에, 「신녀의 생애는 원래 꿈이니 시누이의 사는 곳에 본래 신랑이 없네.」 내 생각으로는 소고는 장자문의 누이이다. 고악부 소고곡에 이르기를, 「소고의 홀로 사는 곳에 신랑이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39) 〈公子〉: 「一盞新羅酒, 凌晨恐易銷. 歸應衝鼓半, 去不待笙調. 歌好唯愁和, 香穠豈惜飄. 春場鋪艾帳, 下馬雉媒嬌.」

〈無題〉 2수 중 제2수⁴⁰⁾ 제2연에서 ‘小姑(시누이)’를 풀이하고 있다. 이상은의 무제시는 14수로서 이들 시가 대개 이별의 그리움과 애정상의 失意와 感傷, 그리고 幻滅 등을 묘사한 비극성을 지니고 있다.⁴¹⁾ 이 시는 寓托이 비교적 뚜렷하여 고요한 밤에 여인의 자신의 신세와 절망적인 의식을 묘사한 것으로 筆意가 虛渾하다.⁴²⁾ 여인은 시인 자신이니 제2연에서 불우한 身世가 꿈같고 艱辛도 없다고 한 것은 그가 令狐楚, 崔戎에 의거하다가 그들이 죽은 후에 王茂元에 의지하고 다시 鄭亞, 盧弘止에 의지하였으나 이들도 모두 먼저 餓殍을 가거나 죽으니 그 신세를 토로한 것이다.⁴³⁾ 제2연의 ‘神女’는 巫山の 神女이며, ‘小姑’는 古樂府의 〈清溪小姑曲〉에서 연원하는데⁴⁴⁾ 이수광이 ‘小姑’를 ‘蔣子文妹’로 지칭한 근거는 다음 두 가지 자료에 의거했다고 보니 즉 劉敬叔《異苑》의 「清溪小姑, 蔣子文第三妹也.」(청계의 소고는 장자문의 셋째 누이이다.)구와 楊炯《小姨墓碑》의 「虞帝二妃, 湘水之波瀾未歇; 蔣侯三妹, 清溪之軌跡可尋.」(순임금의 두 비 있어 상수의 거친 파도가 그치지 않았다. 장후의 셋째 누이는 청계의 자취에서 찾을 수 있다.)구이다.⁴⁵⁾

*제19조 李義山撰彭陽公誌文詩曰: 「待得生金後, 川原亦幾移.」按晉書賈逵石碑中生金. 庾信文曰: 「碑(缺)生金.」, 陰鏗古墓詩: 「碑書欲有金.」此也. 徙唐本作後似是.

이의산은 팽양공의 지문을 짓는 시에 말하기를, 「기다려서 금을 얻은 후에, 냇물과 언덕을 또한 얼마나 옮겼는가.」 진서에 의하면 가구의 비석 속에 금이 있다고 하였다. 유신의 글에 이르기를, 「비석에(결자) 금이 있다.」 음갱의 고묘시에 「비석의 글에 금이 나오려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徙를 당본에는 後로 썼는데, 옳은 것 같다.

〈撰彭陽公誌文畢有感〉 시의⁴⁶⁾ 제4연에서 ‘生金’을 풀이하고 있다. 이 시는 令狐

40) 《無題》 제2수: 「重幃深下莫愁堂, 臥後清宵細細長. 神女生涯元是夢, 小姑居處本無郎. 風波不信菱枝弱, 月露誰教桂葉香. 直道相思了無益, 未妨惆悵是清狂.」

41) 劉學鍇《李商隱詩歌研究》 p. 34(安徽大學出版社 1998)

42) 上同 p. 38-39

43) 上同 p. 39 劉學鍇, 余恕誠《李商隱詩歌集解》 p. 1617: 「按: 二句謂回憶往昔, 遇合如夢, 至今幽居獨處, 終身無托.」

44) 朱鶴齡 上揭書: 「古樂府清溪小姑曲: 開門白水, 側近橋梁. 小姑所居, 獨處無郎.」

45) 朱鶴齡 上揭書

楚를 위한 誌文으로서 功德을 추앙하고 感恩에 대해 보답하는 시이다.⁴⁷⁾ 제4연에 대해서 淸代 何焯은 은혜를 평소에 보답할 수 없고 오직 이 글로 기탁한 것이라고 주석하고⁴⁸⁾ 淸代 姜炳璋은 「七八言公志在濟世, 卽此碑石亦當生金利物。」(7, 8구는 공의 뜻이 세세에 있는 즉 이 비석도 생금하는 이물이다.)(《選玉谿生詩補說》)라고 하여 令狐楚의 뜻이 濟世에 있었으므로 그 비석도 생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生金'의 어원을 王隱의 《晉書》 石瑞記의 賈逵의 石碑 고사와 庾信의 碑文,⁴⁹⁾ 그리고 陰鏗의 〈行經古墓〉 제4구⁵⁰⁾에서 인술한 것은 이수광의 淵博한 識見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서 淸代 主석에서 陰鏗의 시는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22조 李商隱詩云:「今朝歌管屬檀郎。」又崔女詩, 「不見檀郎年少時。」檀郎蓋指良人而未知意義。按晉藩岳小字檀奴, 抑或以此耶。

이상은 시에 이르기를, 「오늘 아침 노래와 피리로 나에게 화답하네。」 또 최여인의 시에 「님의 젊은 시절을 보지 못했네。」檀郎은 대개 남편(良人)을 가리키는데 그 뜻을 모르겠다. 내 생각으로는 진대 반약의 아명이檀奴이니, 혹시 이것에서 나온 것인가 한다. (시어檀郎의 의미와 유래의 해석)

〈王十二兄與畏之員外相訪見招小飲時余以悼亡日近不去因寄〉⁵¹⁾시 제2구의 시어檀郎의 의미와 어원을 풀이하고 있는데 정확하다. 이 시는 王茂元의 딸인 亡妻에 대한 애도와 자신의 淒情을 묘사한 것으로⁵²⁾ 詩題의 王十二는 王茂元의 아들이며 畏之는 이상은과 같이 王茂元의 사위(壻)이다.⁵³⁾ 朱鶴齡은 「或曰; 檀奴, 潘安仁小

46) 〈撰彭陽公誌文畢有感〉:「延陵留表墓, 峴首送沈碑. 敢伐不加點, 猶當無媿辭. 百生終莫報, 九死諒難追. 待得生金後, 川原亦幾移。」

47) 姚培謙《李義山詩集箋注》:「爲感恩知己人作碑, 以延陵, 峴首發端, 已極推崇。」

48) 《讀書記》:「待得生金後二句評:恩門非尋常可報, 惟此文使托以不朽而已。」

49) 晉書:「永嘉初, 陳國項縣賈逵石碑中生金, 人鑿取賣, 賣已復生, 此江東之瑞也。」 庾信碑文:「刺史賈逵之碑, 旣生金粟。」

50) 《全漢三國晉南北朝詩》 全陳詩 卷一 p. 1368 臺灣世界書局 1978

51) 詩: 謝傅門庭舊未行, 今朝歌管屬檀郎. 更無人處簾垂地, 欲拂塵時鏡竟牀. 嵇氏幼男猶可憫, 左家嬌女豈能忘. 秋霖腹疾俱難遣, 萬里西風夜正長.

52) 《李商隱詩歌集解》 p. 1209

53) 金聖嘆《貫華堂選批唐才子詩》:「先生與畏之同爲王茂元壻, 此王十二兄, 想卽茂元之子, 故得以閨房之至悲盡情相告也。」

字, 後人因號曰檀郎。」(어떤 이는 말하기를, 단노는 반약의 어릴 적 자로서 후인이 이로서 단랑이라 불렀다.)라 주석하고 馮浩는 「臆乘:古之以郎稱者, 潘岳曰潘郎, 檀郎。」(역수에 옛날 랑으로 칭한 것에 따라 반약을 반랑, 단랑이라 불렀다.)라고 주석하니, '檀郎'은 潘岳을 지칭한데서 유래되고 唐人의 풍습상 '檀郎'으로 '婿'를 칭하였다 하니 이로서 이수광의 풀이가 타당함을 본다.

*제24조 李義山詩:「鑱香金屈戌, 帶酒玉崑崙。」按稗史曰: 戌卽膝耳。李長吉詩:「屈膝銅鋪鑱阿甄」, 甄指甄后, 猶言阿嬌也。義山所謂屈膝蓋酒器, 崑崙蓋酒器, 二者非必器名, 疑亦以形象而言。

이의산 시에 「향기가 금굴술에 잠기니, 술을 가져다 옥곤륜에 담네。」
패사에 의하면, 戌은 곧 膝일 따름이다. 이장길 시에 「무릎을 굽힌 모양의 구리 문고리는 미인을 가두네。」
견은 견후를 가리키며 아교오하려 아교 미인을 말한다. 의산의 소위 굴술은 향그릇일 것이며, 곤륜은 술그릇일 것
이나 두 개는 반드시 그릇 이름이 아니고 형상으로 말한 것인가 한다.

〈魏侯第東北樓堂郢叔言別聊用書所見成篇〉시의 제5연구의 '屈戌'과 '崑崙'의 어의를 풀이한 부분인데 李郢의 이별연을 묘사한 시이다. '崑崙'에 대해서는 馮浩가 「此玉崑崙, 似指酒器耳。又曰: 玉崑崙必酒蓋, 無煩多猜。」(이 옥곤륜은 술그릇과 같을 뿐이다. 또 말하기를, 옥곤륜은 반드시 술잔이니 번거롭게 많이 의심할 게 없다.)라고 하여 '崑崙'을 '술잔'으로 풀이하였으나, '屈戌'에 대해서는 道源의 注에 李賀의 上記 시구를 인용하고 《輟耕錄》의 '環鈕'(둥근 꼭지)라 하여 북방에서는 '屈戌'이라 말한다는 기록을⁵⁴⁾ 인용하고 있어 이수광의 '향그릇'이란 풀이에는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수광의 주석으로 보면 이상은 시구는 「향내가 금향로에 잠기니 술을 옥술잔에 담네。」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워지니 그 분석력이 출중하다.

*제25조 李義山聽鼓詩, 「欲問漁陽欸, 時無禰正平。」按欸上聲, 三搗鼓也, 又擊鼓之法也。沈存中筆談以爲應據書云:「聽廣陵之欸散」, 爲曲名明矣。漁陽欸正如廣陵之欸也。

이의산의 청고시에 「어양의 북소리 즉 참곡을 물으려 하나, 때마침 예 정평이 없네。」
내 생각으로는 欸은 上聲이고 세 번 북을 치며 또 북 치는

54) 《輟耕錄》:「今人家窓戶設鉸, 名曰環鈕, 卽古金鋪之遺意, 北方謂之屈戌。」

법이다. 심존중의 필담에 응거의 글이라고 여겨 이르기를, 「광릉의 청산을 듣는다」고 하였는데 散이 곡명인 것이 분명하다. 어양참은 마침 광릉산과 같은 것이다.

〈聽鼓〉 오언절구 제2연의 漁陽摻의 ‘摻’에 대해서 풀이하고 있는데 그 해석의 근거가 분명하다. 이 시를 보면,

城頭疊鼓聲, 城下暮江清. 성 머리에는 북소리 들리고, 성 아래에는 저녁 강물이 맑다.
欲問漁陽摻, 時無襴正平. 어양참을 물으려하나 때마침 예정평이 없구나.

위에서 漁陽摻은 擊鼓의 曲調로서 樂曲에 맞추어 북을 치는 경우에 해당한다.⁵⁵⁾ 擊鼓에 능한 襴衡이⁵⁶⁾ 없으니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시인 자신의 世俗에 激發하고 權貴를 멸시하는 정감을 묘사한다. 그래서 姚培謙은 「借鼓聲抒憤懣也.」(북소리를 빌려서 분만을 표현하다.)(《李義山詩集箋注》)라 하고 何焯은 「正爲身似正平耳.」(마침 몸가짐이 예형과 같을 따름이다.)(《輯評》)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散’은 거문고의 歌曲 즉 琴曲을 일컬으니 곡조라는 의미에서 상통한다.

*제26조 義山詩, 「簾水將飄枕.」 簡齋詩曰: 「雪月冰寒衾.」 山谷詩, 「風力欲冰酒.」 皆作去聲用.
의산의 시에, 「대자리의 얼음이 베개에 떨어지려 하네.」 간재의 시에 이르기를, 「눈 맺힌 달빛이 얼음처럼 찬 이불에 든다.」 산곡의 시에 「바람 기운이 술을 얼음처럼 차게 하네.」이 모두가 거성으로 쓰인다.

〈石城〉시⁵⁷⁾ 제3구의 ‘氷’자의 해석인데 이 시는 이상은이 湘(湖南)지방으로 가던 중 郢지방을 지나면서⁵⁸⁾ 지은 艷詞이다.⁵⁹⁾ 이수광은 ‘簾氷’으로 기재하고 송대

55) 胡仔《茗溪漁隱叢話後集》卷十四引湘素雜記
56) 馮浩《玉谿生詩集箋注》에 後漢書의 襴衡傳을 인용하여 漁陽摻과의 연관성을 설명.
57) 〈石城〉: 「石城誇窈窕, 花縣更風流. 簾水將飄枕, 簾烘不隱鉤. 玉童收夜鑰, 金狄守更籌. 共笑鴛鴦綺, 鴛鴦兩白頭.」
58) 張采田《玉谿生年譜會箋》: 「此義山赴湘過郢時作.」
59) 程夢星《重訂李義山詩集箋注》: 「題以地名, 詩實艷體.」 紀昀《玉谿生詩說》: 「此是艷詞, 格

陳與義와 黃庭堅의 시구를 인용하여 의미 상통시키고 있다. 판본에 따라서 ‘氷’을 ‘水’로 기재함이 의미 상통한다는 설이 있으나, 毗陵蔣氏《李義山詩集》과 姜道生《李商隱詩集》, 悟言堂抄本《李商隱詩集》, 胡震亨輯《李商隱詩集》 등 明代 板本과 清影宋抄本《李商隱詩集》이 모두 ‘氷’으로 기재한 바, 이수광이 ‘氷’으로 표기한 것은 순리에 맞다고 본다. 그러나 詩意面에서 姚培謙은⁶⁰⁾ 제3구는 여름 낮이며 제4구 「簾烘不隱鈎」(발속에 등불이 밝게 비추어 고리가 드러나네)는 겨울밤이라 하고, 屈復은 「簾紋如水」(대자리 무늬가 물 같다)라 하고 근인 余恕誠은 「簾水指簾上之水紋」(대자리의 물은 대자리 위의 물무늬를 가리킨다)⁶¹⁾ 라고 하여 「簾水將飄枕」(대자리의 물무늬가 베개에 어른대네)라고 풀이하면서 ‘水’로 기재함이 옳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2. 詩語句의 典故에 대한 考證

이수광은 시어해석상 제1, 2조에서 漢宮詞의 金莖의 이슬 하사와 靑雀 부분, 그리고 제4조에서는 渾瑊의 고사, 제13조에서는 秦穆公의 고사, 제20조에서는 바둑의 기원 등 5개조에서 시구의 由來를 규명하고 있다.

* 제1조 李商隱詩曰: 「靑雀西飛更未回, 君王長在集靈臺. 侍臣最有相如渴, 不賜金莖露一杯.」 羅大經《鶴林玉露》以爲「靑雀不回, 神仙無可致之理, 而武帝不悟, 猶徘徊臺上, 庶幾見之.」此言然矣. 又以爲「相如正苦消渴, 何不以一杯賜之, 驗其眞妄乎.」余謂此言非是. 蓋言武帝惑於長生之說, 侍臣有相如之渴, 而惜一杯金露, 不借賜之也. 詩意恐只如此.

이상은 시에 말하기를, 「푸른 새가 서쪽으로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임금은 오래 집영대에 있네. 신하 중에 사마상여가 가장 목말라 한데, 금경의 이슬 한 잔을 내리지 않네.」나대경의 학림옥로에서는 「푸른 새가 돌아오지 않으니 신선이 될 도리가 없는데 무제가 깨닫지 못하고 오

調亦靡靡之甚.」

60) 姚培謙《李義山詩集箋注》: 「簾水句, 夏之句也, 簾烘句, 冬之夜也.」

61) 屈復《玉谿生詩意》: 「簾紋如水, 正與飄字相應.」 余恕誠《李商隱詩歌集解》: 「氷如爲凝涕, 則與飄枕不合; 如指流淚, 則不得謂之氷. 作者顯誤. 簾水指簾上之水紋. 燈光明亮, 簾紋似水, 如將飄枕.」

히려 누대 위에서 배회하며 보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그러하다. 또 「사마상여가 마침 소갈증으로 고생하는데 어찌 이슬 한 잔을 내려서 그 참되고 거짓됨을 시험하지 않았나?」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노니 이 말은 옳지 않다. 대개 무제가 장생설에 미혹되어 신하 중에 상여가 갈증에 걸렸는데 한 잔의 금경 이슬을 아껴서 내려주지 않았음을 말한다. 시의 뜻이 아마도 단지 이러한 따름이다.

*제2조 李商隱詩: 「青雀西飛更未回。」三體詩註引西王母青鳥使爲證. 余恐不然, 《洞冥記》曰: 「有女名巨靈, 悅於帝, 戲笑帝前, 東方朔望見巨靈, 乃目之, 巨靈化成青雀飛去, 乃起青雀臺云。」蓋出於此.

이상은 시에 「푸른 새가 서쪽으로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네。」라고 하였는데 삼체시의 주에서는 서왕모의 청조사를 인용하여 증거로 삼았다. 나는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본다. 동명기에 말하기를, 「거령이라는 여인이 있어 무제를 좋아하여 무제 앞에서 놀이하러 웃으니 동방삭이 거령을 보고 곧 눈짓하매 거령이 푸른 새가 되어 날아가서 곧 청작대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대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위의 2개조는 〈漢宮詞〉 7언절구시로서 이상은이 漢武帝의 求仙 고사를⁶²⁾ 빌려서 唐武宗이 神仙을 추구하여 政事를 소홀히 함을 풍자한⁶³⁾ 작품이다. 제1조에서 이수광은 羅大經의 《鶴林玉露》 評에서 武帝의 求仙無益은 긍정하고 眞僞를 시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제의 虛妄한 長生을 위한 求仙의식만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부정하고 있다. 이 시에 대해서 청대 沈德潛이 「言求仙無益也. 或謂好神仙而疏賢才, 或謂天子求仙.」(신선을 바라는 것은 무익함을 말한다. 혹은 신선을 좋아하고 현재를 멀리함을 말한다고 하고 혹은 천자가 신선을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唐詩別裁集》)라 하고 청대 徐增은 「此甚言求仙無驗, 天子不當向此虛誕之事.」(이것은 신선을 바래도 징험이 없으니, 천자가 이런 허탄한 일을 받드는 것은 부당함을 잘 말해준다.)(《而菴說唐詩》)라 하여 실현성 없는 신선추구를 풍자한 점을 지적하였고, 청대 吳逸一은 이상은이 唐末의 王道가 혼란함을 간접적으로 풍

62) 《漢武故事》: 「七月七日, 上於承華殿齋, 忽青鳥從西來. 上問東方朔, 朔曰: 西王母欲來. 有頃, 王母至.」

63) 余恕誠《李商隱詩歌集解》二冊p. 592: 「程箋謂專刺武宗, 甚是. 史載, 武宗好神仙, 道士趙歸眞得幸. 諫官屢以爲言, 李德裕亦諫之. 會昌五年正月, 勅造望仙臺於南郊壇. ……此詩之作, 約在築望仙臺之後, 義山重官秘閣前. 是時義山閒居已久, 亟盼起用, 故有相如渴之語.」

유한 것으로 평하여 「唐憲宗服金丹暴崩，穆宗復循舊轍，義山此作，深有託諷意。天子好仙，宮闈必曠。」(당 헌종이金丹을 복용하여 죽고, 목종도 또 전철을 따르니 의산의 이 시는 풍유의 뜻이 깊다. 천자가 신선을 좋아하니 궁문이 반드시 빈다.) (《唐詩選脈箋釋會通評林》)라고 하였다. 이수광은 명청대 評語를 先導하고 그 내용이 세밀하고 객관적이다.

그리고 제2조는 漢武帝가 신선을 추구하는 과정에 靑雀臺를 짓게 된 동기를 《洞冥記》를 인용하면서 밝히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고사가 《山海經》에⁶⁴⁾ 이미 기록되어 있는 바, 이수광이 단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면 三體詩注를 「余恐不然」이라 평한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제4조 李商隱詩曰：「咸陽原上英雄骨，半向君家養馬來。」此爲渾侍中作也。有人言渾瑊常燒人骨喂馬，馬甚肥健。此事出於雜書云。

이상은 시에 말하기를, 「함양 언덕에 영웅의 뼈가 반은 그대 집을 향해 말 먹이러 오네。」라고 하였다. 이것은 혼시중을 위해 지은 것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혼감이 항상 인골을 태워서 말에 먹이니, 말이 매우 살찌고 건장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일은 잡서에서 나온 것이다.

〈渾河中〉시⁶⁵⁾ 제2연은 漢武帝時 金日磾가 養馬하여 莽何羅를 토벌한 功으로 稔侯에 封해진 고사를 비유하여 渾瑊의 忠誠과 謙愼을 칭송한 부분이다. 이 시는 德宗이 奉天으로 순행하매 가솔을 인솔하여 왕을 호위하고 河中節度使가 된 혼감의 英勇氣概와 功績을 묘사한 詠事詩로서⁶⁶⁾ 朱鶴齡이 《漢書》에서 김일제의 「輸黃門養馬」(대궐문에 보내어 말을 기르다)구를 인용하고 《舊唐書》에서는 「瑊忠勤謹愼，功高不伐，時論方之金日磾。」(혼감이 충성하고 근면하며 근신하고 공이 높아도 자랑하지 않으니 그 때에 논하여 그를 김일제에 비유하였다.)(卷134 列傳第84)구를 인용하여 혼감을 김일제와 비교할만하다고 하였고 姚培謙도 「忠勤謹愼，功高不伐，時人方之金日磾，末句翻其意，言其養馬兒，且可方日磾也。」(충성하고 근면하며

64) 馮浩《玉谿生詩集箋注》：「山海經大荒西經曰：西有王母之山，有三青鳥，赤首黑目，一名大鷲，一名少鷲。注曰：皆西王母所使也。」

65) 〈渾河中〉：「九廟無塵八馬迴，奉天城壘長春苔。咸陽原上英雄骨，半向君家養馬來。」

66) 《舊唐書》卷134 列傳 第84

근신하여 공이 높아도 자랑하지 않으니 그 때 사람들이 그를 김일제에 비유하였고 말구에서 그 뜻이 바뀌어 그 말 기르는 사람을 말하니 또한 김일제에 비유할만하다.)(《李義山詩集箋注》)라고 하여 같은 맥락으로 풀이하였으며 청대 程夢星은 제 2연을 풀이하기를 「所謂英雄即指渾城, 君家乃指君上.」(소위 영웅은 곧 혼감을 가리키며 그대 집은 곧 임금의 가리킨다.)(《重訂李義山詩集箋注》)라고 기술하고 또 「言渾公功名之盛, 河中事業, 當時無比.」(혼공의 공적과 명성이 성대하여 하중의 사업을 당시에 비교하지 못했음을 말한다.)(상동)라고 평하고 있을 뿐 혼감이 말에게 인골을 먹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이수광이 거론한 잡서의 출처를 모르니 이상은의 시구 내용의 근거를 밝힐 수 없다.

*제13조 義山詩云:「自是當時天帝醉, 不關秦地有山河.」按秦穆公夢至帝所, 天帝饗之醉, 賜金策云云. 庾信哀江南賦云:「以鶉首而賜秦, 天何爲而此醉.」詩意乃用此也.

의산 시에 이르기를, 「이에 그 당시에 천제가 술에 취해, 진땅에 산천이 있음을 상관 않네.」 내 생각으로는 진목공이 꿈에 천제 있는 곳에 이르니 천제가 향응하여 취하여, 황금 표찰을 하사하였다. 유신의 애강남부에 이르기를, 「남방의 별자리 순수 분야를 진나라에 주니 하늘이 어찌 리도 취한 건가.」 시의 뜻이 곧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咸陽〉시 제2연에서 천제가 술에 취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시를 보면,

咸陽宮闕鬱嵯峨, 함양 궁궐은 울창하여 우뚝 솟아 있고
六國樓臺艷綺羅. 육국의 누대는 곱고 화려하네.
自是當時天帝醉, 이에 그 당시에 천제가 취하여
不關秦地有山河. 진땅에 산하가 있음을 상관 않네.

이 시는 秦나라가 六國을 합병한 것은 天祐이지 산천이 견고하여 강대한 때문만이 아니라 주제를 설정하여 唐末의 暴政을 諷諫한다. 그래서 朱鶴齡은 「言暴秦之兼并六國, 實天帝畀之, 非以其地有山河之固也.」(사나운 진이 육국을 합병하니 진실로 천제가 준 것이 그 땅에 산천이 견고한 때문이 아니다.)(《李義山詩集箋

注)라고 하고 屈復은 「諷諫時王, 言險不足恃也. 唐猶秦之故都, 可想而知.」(그 당시의 왕을 풍간한 것으로 험하여 믿기에 부족함을 말한다. 당은 또한 진의 고도이니 생각하면 알 수 있다.)(《玉谿生詩意》)라고 평하고 있다. 咸陽은 秦과 唐의 도읍지로서 시인이 양국의 運命을 연관시킨 것이며 '天帝醉'에 대해서 唐觀의 해설과⁶⁷⁾ 같이 이수광은 《史記》扁鵲傳에서 그 어원을 찾고 庾信의 賦에서 南方의 星宿인 鶉首의 天文運行으로 秦이 六國을 병합한 것을 밝혔는데 매우 정확하다. 그리고 이상은이 '天帝醉'라고 묘사한 의도는 清代 姜炳章이 「秦得天下, 由于天帝之醉, 然醉則易醒, 故六國既沒, 秦亦遂亡. 炯戒之意出于諛辭, 却非杜撰, 妙絕.」(진이 천하를 얻으니 천제가 취한 때문이나 취한 즉 쉽게 깨니 고로 육국이 이미 망하고 진도 드디어 망하였다. 밝은 경계의 뜻이 해학적인 말에서 나왔고 오히려 날조가 아니니 절묘하다.)(《選玉谿生詩補說》)라고 해설한 것과 상통하고 이수광이 庾信의 문구를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제20조 李義山詩: 「玉作彈碁局, 中心亦不平.」按彈碁之戲始於漢成帝. 陸放翁云: 古彈碁局狀如香爐, 蓋謂其中隆起也.

이의산 시에, 「옥으로 바둑판을 만드니 가운데가 평평치 않네.」 내 생각으로는 바둑 놀이는 한나라 성제 때에 시작되었다. 육방옹이 이르기를, 「옛 바둑판의 모양은 향로와 같았다.」라고 하니, 대개 그 가운데가 툭 튀어나왔다는 말이다.

〈柳枝〉 5수는 여인을 회상하며 지은 情詩로서 序文의 일단을 보면,

柳枝, 洛中里娘也. 父饒好賈, 風波死湖上. 其母不念他兒子, 獨念柳枝. 生十七年, 塗粧結髻未嘗竟, 已復起去, 吹葉嚼蕊, 調絲擘管.

유지는 낙양 마을의 처녀였다. 아버지는 부유하고 뛰어난 상인이었는데 풍랑으로 강호에서 죽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른 자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유지만을 사랑하였다. 유지는 17세가 되었으나 화장하거나 머리를 매만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또 화장도 제대로 않고 나가곤 하였다. 그녀

67) 唐觀《延州筆記》: 「按文選張平子西京賦曰: 昔者天帝悅秦穆公而觀之, 享以鈞天廣樂, 帝有醉焉. 乃爲金策, 錫用此土. 又廣文選庾信哀江南賦曰: 以鶉首而賜秦, 天何爲而此醉. 秦穆公夢至帝所, 事見史記扁鵲傳. 故二賦皆引之. 義山詩所謂天帝醉者, 蓋本二賦及史記也.」

는 나무 잎 파리를 붙여보고 꽃술을 깨물기도 했으며, 거문고를 잘 타고 통소를 잘 불었다.

라고 하여 시인 자신이 그 대상 여인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 이수광이 거론한 제2수를 들어 보면,

本是丁香樹, 春條結始生. 본래 정향나무 꽃이 봄 가지에 맺혀서 나오네.
玉作彈碁局, 中心亦不平. 옥으로 바둑판을 만드니 가운데가 평평치 않네.

이 시는 姚培謙과 馮浩가 평한 것처럼 짝이 없음을 한탄하여 스스로 밝힌 것이며,⁶⁸⁾ 제2연의 '中心不平'은 자기 內心의 不平을 比喻한 것인데⁶⁹⁾ 이수광은 여기서 단지 바둑의 기원과 바둑판의 모양을 풀이하고 있어 이미 그 뜻을 이해하고 바둑에 관해서만 설명한 것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3. 시의 主題에 대한 論證

이수광이 이상은 시에서 시의 主題를 거론한 부분이 제5, 6, 7, 8, 21, 23조 등 6개조이다.

*제5조 李商隱詩曰:「嫦娥應悔偷靈藥, 碧海青天夜夜心。」此詩以首句「雲母屏風燭影深」觀之, 似是宮怨或閨情之作, 必有所指而言. 其集中詩如此者非一二, 深味之, 其意可見.

이상은 시에 말하기를, 「항아가 응당 영약을 훔친 것을 후회하니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에 밤마다 마음 편치 않네.» 이 시는 첫구에서 「운모병풍에 촛불 그림자가 깊구나.»를 보면, 이것은 궁녀의 원망이나 규방의 정을 담은 작품 같으니 반드시 가리키는 바가 있어서 말한 것이다. 그 문집에서 이러한 시는 한 둘이 아니니 깊이 음미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68) 姚培謙《李義山詩集箋注》:「次章此以恨無作合之人自解。」馮浩《玉谿生詩集箋注》:「次章無從結合, 徒抱不平, 當皆就柳枝說。」

69) 余恕誠《李商隱詩歌集解》p. 120:「三四以彈碁局之中心不平喻己內心之不平, 隱寓一憤字. 三四喻己而非喻柳枝, 可於亦字味出。」

이수광은 〈嫦娥〉 70) 제1구와 제2연을 인용하여 이 시가 규방의 孤寂한 情恨을 노래한 작품으로 보았다. 翳의 처인 嫦娥가 不死之藥을 훔쳐 먹고 달로 도망갔다는 신화에 71) 기탁하여 풍자한 바, 沈德潛이 「孤寂之況, 以夜夜心三字盡之。」(고적한 상황을 夜夜心 석자로 다하고 있다.)(《唐詩別裁集》)라고 하고 屈復은 「嫦娥指所思之人也. 作眞指嫦娥, 癡人說夢。」(향이는 그리운 사람을 가리킨다. 진정 향이를 가리킨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꿈 얘기하는 것이다.)(《玉谿生詩意》)라고 평하고 있어서 이수광의 견해와 상통한다.

*제6조 李商隱詩: 「于今腐草無螢火, 終古垂楊有暮鴉。」 註者以爲上句喻氣焰消歇, 下句喻惡名猶在. 余謂不然. 按楊帝於宮中, 徵求螢火數斛, 夜遊放之, 又種隋堤楊柳. 蓋謂其時取螢盡矣, 故今無復有螢也. 垂楊暮鴉謂楊柳低垂已盛而有鴉來棲, 喻隋業爲唐所有也. 或疑垂與隋音同, 楊隋姓故借用也.

이상은 시에 「지금 썩은 풀에 반딧불이 없고 자고로 버드나무에 저녁 까마귀가 있네。」라고 하였다. 주석하는 이가 윗구는 기염이 사라진 것을 비유하고 아래 구는 악명이 아직 있음을 비유한다고 하였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내 생각에는 수양제가 궁중에서 반딧불을 몇 섬 구하여 밤에 놀게 풀어놓고 또 수나라의 제방에 버드나무를 심었다. 대개 그 때에 반딧불을 잡기를 다한 바 다시는 반딧불이 없다는 말이다. 버드나무의 저녁 까마귀는 버드나무가 낮게 드리워져서 이미 무성하여 까마귀가 와서 깃들었다는 말로서 수나라의 왕업이 당나라에게 소유되었음을 비유한다. 혹시 垂와 隋의 음이 같고 楊이 수나라의 왕실 성이어서 빌려 쓴 것인가 한다.

이수광은 《隋宮》 제3연을 거론하여 제5구는 氣焰이 다하고 제6구는 惡名이 남아 있다는 既說의 단순한 註釋에서 탈피하여 隋나라의 멸망과 연관시켜서 읊은 詠史詩로 72) 보고서 반딧불이 없고 까마귀가 깃든 버드나무가 서 있는 황폐한 수나라 궁궐을 묘사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대 陸時雍은 「隋煬帝荒於酒色, 故末有二語。」(수양제는 주색에 빠져서 때문에 끝에 두 말이 있는 것이다.)(《唐詩鏡》)라

70) 〈嫦娥〉: 「雲母屏風燭影深, 長河漸落曉星沈. 嫦娥應悔偷靈藥, 碧海青天夜夜心。」

71) 《淮南子》覽冥制: 「羿請不死之藥於西王母, 嫦娥竊以奔月。」

72) 俞陸雲《詩境淺說》: 「凡作詠古詩, 專詠一事. 通篇固宜用本事, 而須活潑出之, 結句更須有意, 乃爲佳構。」

하여 동일한 평을 가하였고 청대 周挺은 「此譏煬帝逸遊忘返，窮慾敗國也。」(이것은 양제가 안일하게 놀며 돌아옴을 잊어 끝내 나라를 패망케 함을 나무란 것이다.)(《唐詩選脈會通評林》)라고 하여 수국의 패망을 풍자한 것으로 보았다. 이수광이 同音異語로서 제6구의 '垂'를 '隋', 그리고 버드나무로서의 '楊'을 隋의 첫 황제 文帝 楊堅의 '楊'으로 추리하여 隋宮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풀이로 본다.

*제7조 義山詩: 「內苑只知銜鳳嘴, 屬車無復插鷄翹。」按漢武時西海獻膠, 帝絃斷以膠續之, 終日射不斷, 帝大悅. 十洲記: 「仙家煮鳳嘴鱗角作膠, 名續弦膠。」漢輿服志: 「鸞旗曰鷄翹, 編羽爲之。」上句蓋譏帝好遊獵, 下句譏帝好微行也.

의산 시에 「안뜰에 오직 봉황새 부리를 물줄만 알고, 임금의 시중하는 수레에 다시 닭꼬리를 꽂지 않네。」생각컨대 한무제 때에 서해에서 아교 풀을 바쳤는데 왕의 활줄이 끊어지매 그것을 이어서 종일 쏘아도 끊어지지 않으니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십주기에 「신선의 집은 봉황새 부리와 기린 뿔을 삶아서 아교를 만들고 이름을 속현교라 한다。」라고 하였고 후한서 여복지에는 「봉황깃발을鷄翹라 하니 깃털을 엮어서 만든다。」라고 하였다. 위의 구는 대개 임금이 유럽을 좋아함을 나무라고 아래 구는 임금이 미행을 좋아함을 나무란 것이다.

〈茂陵〉시 제2연에서 '鳳嘴'와 '鷄翹'의 典故를 풀이하고 두 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시의 주제는 제3조와 14조에서 이미 거론한 바 漢武帝를 빌려서 遊獵과 武戲를 좋아하던 唐武宗을 풍자하였는데 이수광이 '鳳嘴'와 '鷄翹'의 어원을 각각 《十洲記》와 《後漢書》輿服志에서 추출한 것과 제3연에서 제5구는 사냥, 제6구는 微行을 암시했다는 분석은 매우 정확하다. 이 시에서 續弦膠는 아교풀로서 사냥의 활줄에 사용하고 鷄翹는 왕의 出行時에 꽂던 깃발이므로 제3연에서 이 두 일을 못한다는 의미로 보면 이 시는 武宗을 애도하는 輓歌辭라 하겠으니 제7구의 '蘇卿'은 이상은 자신을 비유하므로⁷³⁾ 더욱 객관적이다. 그래서 屈復은 「此詩哭武宗而以茂陵比之也. 無復插鷄翹, 已死也。」(이 시는 무종을 애도하여 무릉으로 그것을 비유

73) 屈復《玉谿生詩意》: 「以方朔比歸眞, 以阿嬌比才人, 蘇卿自喻也。」張采田《玉谿生年譜會箋》: 「慨武宗也, 蘇卿自謂。」

하였다. 다시 계교를 꽃지 않았다고 함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다.)(《玉谿生詩意》)라 하고 姚培謙은 「此感武宗舊事, 必是昇遐後作.」(이것은 무종의 옛일을 감흥한 것으로 필시 승하 후에 지은 것이다.)(《李義山詩集箋注》)라고 평한 것이다.

*제8조 李商隱詩曰: 「夕陽無限好, 只是近黃昏.」楊誠齋謂此句喻唐祚之將衰亡也. 余則以爲不過吟暮景耳. 僧無可詩曰: 「聽雨寒更盡, 開門落葉深.」古人謂「此詩以落葉爲雨聲.」余則以爲落葉深, 乃雨後景耳. 唐人作詩多在有意無意間, 情景宛然, 而觀者輒以有意求之, 恐不免穿鑿. 他如「微陽下喬木, 遠燒入秋山.」, 亦以卽景看得何害.

이상은 시에 이르기를, 「석양이 한없이 좋은데 단지 황혼이 가깝구나.」양성제는 이 구는 당나라 운세가 쇠망함을 비유한 것이라고 하였다. 내 생각으론 단지 저녁 경치를 읊은 것일 뿐이라고 본다. 승려 무가 시에 말하기를, 「빗소리 들으며 추운 한밤이 다하고 문을 여니 낙엽이 깊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이 시는 낙엽을 빗소리로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낙엽이 깊다는 곧 비 온 후의 경치일 따름이다. 당나라 사람이 시를 짓는데 다분히 뜻이 있든 없든 간에 정감과 경치가 뚜렷하여 보는 자가 문득 뜻이 있다고 찾으려 하면 아마도 너무 깊이 파고드는 점(천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컨대 「가느다란 빛이 높은 나무에 내리고 멀리 들불은 가을 산에 든다.」같은 것은 또한 눈앞의 경치로 보아서 어찌 나쁘겠는가?

이수광은 〈樂遊原〉시의 제2연을 인용하여 宋代 楊萬里이 唐의 衰亡을 비유했다는 주제설명을 부인하고 단지 저녁경치(暮景)를 묘사한 것으로 평하고 있다. 이 시를 보면,

向晚意不適, 驅車登古原. 저녁 무렵 마음이 편치 않아, 수레 몰아 옛 언덕에 오르니
夕陽無限好, 只是近黃昏. 석양이 한 없이 좋은데, 단지 황혼이 가깝구나.

樂遊原은 長安 남쪽에 위치하여 漢唐代에 三月三日 삼짋날과 九月九日 重陽節에 祓禊하던 명승지의 하나인데 이 시의 제1연은 단순히 답답한 심정으로 언덕에 올라가는 시인의 모습을 본다면 제2연에 대한 해설은 대개 당 쇠퇴의 풍자와 노년에 대한 개탄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로 楊萬里가 「李義山憂唐之衰運; 夕陽

無限好, 其奈近黃昏。」(이의산은 당의 쇠운을 걱정하여 석양이 한없이 좋은데 그 어찌 황혼이 가까운가 하였다.)(《誠齋詩話》)라 평한 것과, 朱彝尊이 「言值唐家衰晚也。」(당나라의 쇠퇴를 말한다.)(《李義山詩集輯評》)라 한 평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로는 姜炳璋이 「此憂年華之遲暮也。」(이것은 나이가 늙어감을 걱정한 것이다.)(《選玉谿生詩補說》)라 한 평과, 施補華가 「歎老之意極矣。」(늙음을 탄식하는 뜻이 대단하다.)(《峴庸說詩》)라 한 평, 그리고 章燮이 「此李公傷老之詞也。」(이것은 이공이 늙음을 슬퍼하는 글이다.)(《唐詩三百首注疏》)라고 한 평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수광만은 상기의 두 說보다는 邱燮友가 「這是一首賦景感傷的詩。」(이것은 한 수의 경치를 묘사하고 감상에 젖은 시이다)⁷⁴)라고 평한 바와 같이 저녁풍경을 읊은 感傷詩로 평하고 있다. 이 시는 張采田이 「楊氏云: 遲暮之感, 沈淪之痛, 觸者紛來, 可謂此善狀, 詩妙處, 謂憂唐之衰者, 只一義耳。」(양만리가 말하기를, 저물어가는 감흥과 깊이 빠진 아픔 등 느끼는 것이 어지러이 다가오니 이것은 좋은 글이라 말할 수 있으며 시의 묘처에 있어 당의 쇠퇴를 걱정을 말하는 것이라 한 것은 단지 한 가지 뜻일 뿐이다.)(《玉谿生年譜會箋》)라고 평한 것처럼 하나의 의미만으로 주제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수광의 견해도 참고할 만 하다고 본다.

*제21조 李商隱詩: 「可憐夜半虛前席, 不問蒼生問鬼神。」此詩連上接下見之, 則可憐二字改作如何, 似當.

이상은 시에, 「가엾어라 한밤에 앞자리 비워두고, 백성을 묻지 않고 귀신을 묻네.」이 시는 상하 구를 이어서 보면, 可憐 두 글자를 如何로 고쳐 쓰면 온당할 것 같다.

〈賈生〉 제2연에서 ‘可憐’을 ‘如何’로 시어를 바꾸면 뜻이 더 잘 통할 것이라는 이수광의 견해이다. 이 시의 주제는 漢代 文帝가 賈誼를 불러 政事를 논하지 않고 鬼神의 근본을 물었던 故事를⁷⁵) 빌려서 李德裕가 唐武宗의 好仙을 諫한 일을 풍자한 것이다.⁷⁶) 이 시의 제1연을 덧붙여 보면,

74) 邱燮友 《新譯唐詩三百首》 p. 340(臺灣 三民書局 1973)

75) 《史記》賈生傳: 「賈生徵見, 孝文帝方受釐, 坐宣室, 上因感鬼神事而問鬼神之本, 賈生因具道所以然之狀. 至夜半, 文帝前席. 既罷, 曰: 吾久不見賈生, 自以爲過之, 今不及也.」

宣室求賢訪逐臣, 선실에서 현인을 구하여 추방당한 신하를 찾으니
賈生才調更無倫, 가생의 재주는 더욱 비길 데 없도다.

여기서 '宣室'은 未央宮의 正室, '逐臣'은 長沙太傅로 나가 있던 賈誼를 가리키는 데 이수광의 의견대로 '如何'로 한다면, 「어찌하여 한밤에 앉자리 비워두고, 백성을 묻지 않고 귀신을 묻는가.」라고 해석하게 된다. 反語 형식으로 표현하여 제4구의 不當한 왕의 자세를 부각시킨다는 의미에서 수용가능하다고 보지만 '可憐'시어는 왕의 자세에 傷心과 憂慮의 意象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시를 평하기를 명대 范疇文은 「反其事而用之.」(그 사실을 빗대어서 쓴 것이다.)(《對牀夜語》)라 하고 명대 楊逢春은 「首二敘事, 三四議論, 前案後斷, 虛實相生.」(첫 두 구는 사실을 서술하고 3,4구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앞에서는 사실을 제기하고 뒤에서는 결정을 내려서 허실이 상생한다.)(《唐詩釋》)라고 한 것이다.

*제23조. 李商隱錦瑟詩審其詩意, 只是閨情托於錦瑟, 而作思華年之思, 猶怨也. 按小說曰:「錦瑟佳人名」, 亦似然矣.

이상은의 금슬시는 그 시의 뜻을 살펴보면, 단지 규방의 정을 금슬에 의탁한 것으로 젊은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쓰는 원망한다는 것과 같다. 소설에 의하면 「금슬은 미인의 이름이다.」라고 하였는데 또한 그런 것 같다.

이수광은 〈錦瑟〉시를 閨情을 '錦瑟'이란 여인 의탁하여 젊은 시절을 悔恨하는 시로 보고 제2구의 思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시를 보면,

錦瑟無端五十絃, 一絃一柱思華年.
莊生曉夢迷蝴蝶, 望帝春心託杜鵑.
滄海月明珠有淚, 藍田日暖玉生煙.
此情可待成追憶, 只是當時已惘然.
금슬은 부질없이 쉰 줄이나 되어

76) 程夢星《重訂李義山詩集箋注》:「此謂李德裕諫武宗好仙也. 德裕自爲牛僧孺, 李逢吉黨人所阻, 出入十年, 三在浙西, 武宗即位, 始得爲相, 此首句之意也. ……及德裕諫帝信趙歸真, 學養生術, 帝乃不聽, 此下二句之意也.」

한 줄 한 패마다 꽃답던 시절 생각한다.
 장주는 새벽꿈에 나비 되어 넋을 잃었고
 망제는 봄 그리는 마음을 두견새에 맡겼네.
 넓은 바다 위에 뜬 밝은 달은 진주에 눈물 맺힌 듯
 남전에 뜬 따스한 해는 옥에 안개 자욱한 듯하네.
 이 마음을 추억으로 삼을 수 있지만
 오직 그 때에는 너무도 실의에 찼었네.

이 시의 주제에 대해서 諸說이 분분하니⁷⁷⁾, 이수광의 주제 풀이는 그 중의 하나
 이어서 정확한 해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여러 설중에서 胡應麟(《詩藪》), 吳喬
 (《西崑發微》)⁷⁸⁾ 등은 '錦瑟' 자체를 青衣라고 하였고 許顛(《許彥周詩話》), 張邦
 基(《墨莊漫錄》), 熊朋來(《瑟譜》卷6), 邵博(《邵氏聞見後錄》)⁷⁹⁾ 등은 樂器 또
 는 樂曲이라 하였으며, 主題에 있어서 朱鶴齡(《李義山詩集箋注》), 朱彝尊(《李義
 山詩集輯評》), 錢澄之(《田間文集》), 何焯(《李義山詩集輯評》), 查慎行(《瀛奎律
 髓彙評》), 陸崑曾(《李義山詩解》)⁸⁰⁾ 등은 悼亡詩로 보았고, 汪師韓(《詩學纂
 聞》), 姜炳璋(《選玉谿生詩補說》), 宋翔鳳(《過庭錄》卷16)⁸¹⁾ 등은 시인 자신을
 比喻(自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수광의 '閨情'과 같은 해석을 한 경우는 周
 挺이 「此詩自是閨情, 不泥在錦瑟耳.」(이 시는 곧 규정으로서 금슬에 매이지 않을
 뿐이다.)(《唐詩選脈箋釋會通評林》)라고 하였고, 젊은 날의 悔恨을 노래한 것으로
 본 경우는 葉矯然이 「次句說思華年, 懊悔之意畢露矣.」(다음 구는 젊은 시절을 생
 각함을 말하니 후회의 뜻이 다 드러나 있다.)(《龍性堂詩話》)라 하고 杜詔가 「莊
 生夢醒, 化蝶無蹤; 望帝不歸, 啼鵲長託, 以比華年之難再也.」(장생이 꿈을 깨니 나

77) 劉盼遂《李義山錦瑟詩定詁》은 8개 說을 수록하고 있음. (臺灣 學生書局 1971)

78) 胡應麟: 「錦瑟是青衣名, 見唐人小說, 謂義山有感作者.」 吳喬: 「唐詩紀事以錦瑟爲令狐楚丞相
 青衣.」

79) 許顛: 「感怨清和, 昔令狐楚侍人能彈此四曲, 詩中四句, 狀此四曲也.」 張邦基: 「瑟譜有適怨清和
 四曲名, 四句蓋形容四曲耳.」 熊朋來: 「或謂唐時猶言瑟五十弦.」 邵博: 「莊生, 望帝, 皆瑟中古
 曲名.」

80) 朱鶴齡: 「此悼亡之作也.」 朱彝尊: 「此悼亡詩也.」 錢澄之: 「如錦瑟, 悼亡詩也.」 何焯: 「此悼亡
 之詩也.」 查慎行: 「是章解者紛紛, 愚獨謂此義山喪偶詩也.」 陸崑曾: 「悼亡之作無疑.」

81) 汪師韓: 「錦瑟乃是以古瑟自況.」 姜炳璋: 「此義山行年五十, 而以錦瑟自況也.」 宋翔鳳: 「錦瑟
 一篇, 蓋義山五十後自序之作也.」

비가 되어 자취가 없다. 망제가 돌아오지 않으니 우는 두견에 길게 기탁하여 젊은 시절이 다시 오기 어려움을 비유하였다.)(《唐詩叩彈集》)라고 하여 이수광의 풀이를 객관화 시키고 있다. 이같이 시 주제에 대한 여러 설이 있지만 이 시는 그 자체로 멜로디가 울려나오고 있으니 제1연은 음악 연주이며 제2·3연은 연주 속의 담긴 뜻의 운곽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말연에서 심층에서 진동되는 哀傷의 인생 風情을 「惘然」하다는 표현으로 결론짓는다. 이것은 청대 李重華가 말한 바,

詩本空中出音, 卽莊子所云: 『天籟』是已. 籟有大有細, 總各有其自然之節, 故作詩曰吟, 曰哦. 貴在叩寂寞而求之也. 求之不得, 則此中或悲或喜或激或平, 一一隨其音以出焉. (《貞一齋詩說》)

시는 본시 공중에서 발하는 음과 같기에 장자는 『자연의 소리』라고 했다. 소리에는 크고 세밀함이 있고 모두 각기 자연의 절주를 지닌다. 때문에 시를 짓는 것을 일러 「吟」이라 하기도 하고 「哦」라고도 했던 것이다. 시는 적막을 두드리고 찾는 것을 귀히 여긴다. 찾아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슬픔과 기쁨 그리고 걱정과 평정이 하나하나 그 소리를 따라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詩와 音節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고 梁啓超는 이 시를 음절이 생동하는 음악 시로 보고 다음과 같이 서술한 것은 시의 바른 감상을 위한 좋은 예증이 된다.

義山的錦瑟, 碧城, 聖女祠等詩, 講的甚麼事, 我理會不着. …… 但我覺得他美. 讀起來令我精神上得一種新鮮的愉快. 須知美是多方面的, 美是含有神秘性的, 我們若還承認美的價值, 對於這種文字, 便不容輕輕抹煞啊. (《中國韻文內所表現的情感》)

의산의 금슬, 벽성, 성녀사 등 시는 무슨 일을 말하는 지,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 그러나 나는 그의 시가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의 시를 읽게 되면 나의 정신은 일종의 신선한 유쾌감을 얻게 된다. 모름지기 미란 다양성을 띠고 신비성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만약 미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문장을 쉽사리 말살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은의 詩情의 이러한 특성은 作詩에 대한 音節과 藝術的 修養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IV. 結語

《芝峰類說》文章部는 唐詩를 비롯하여 그 後世의 詩와 韓國漢詩와 關連된 題材 內容을 상세하게 比較分析하고 있는 朝鮮詩論의 壓卷이라 할 수 있다. 李暉光은 이 시화를 통하여 博學多識한 論調를 전개하여 상당한 部分에는 根據와 考證을 바탕으로 獨自의인 詩評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朝鮮詩理論을 정리하는데 必須不可缺한 資料가 된다. 더구나 중국 唐詩에 대한 詩語 考證과 典故, 그리고 시의 主題과 押韻에 있어서는 중국 題材 註釋에도 及하지 못한 創見을 적지 않게 기술한 部分은 韓中詩 比較연구라는 次元에서 높이 평가될 만하다. 《芝峰類說》文章部의 構成과 그 內容의 價値를 보면,

첫째 卷9에서 시의 起源과 作法, 그리고 評價基準을 구체적으로 例示하면서 서술하였는데 그 論調가 根據가 있으며 客觀的이라는 것이다.

둘째 卷10에서 卷12까지 중국 歷代시와 한국시를 一般論과 作家論으로 二分하여 주로 작가의 작품을 詩語解釋, 考證, 典故, 그리고 시의 主旨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獨自의인 見解를 서술한 것이다.

셋째 詩史의 立場에서 重視되지 않은 중국과 한국의 작가와 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점인데, 예컨대 初唐의 李適, 韋元旦, 盧僊 등과 盛唐의 朱慶餘, 楊汝士, 于鵠 등, 그리고 中唐의 呂洞賓, 裴思謙, 李山甫, 張泌 등이 있고, 송원명대로는 韓定辭, 石曼卿, 包拯, 柳如京, 莊功易, 張圖, 劉黃裳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권13의 文章部에서는 조선시인으로 무명인 崔修, 禹弘績, 李壽根 등의 시를 극찬하였다.

한편 李暉光이 李商隱 시 22수를 26개조로 분류하여 분석한 部分은 明清代 箋注本 資料와 比較해 볼 때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集約할 수 있다.

첫째 詩語의 根據와 辨證에 있어서 15개 항목을 설정하여 중국의 相關 資料를 熟知한 客觀적인 根據 하에 比평을 가하고 있다. 〈茂陵〉시의 '蒲梢'와 籌筆驛시의 '風雲'을 해석한 것은 중국 註釋에 없는 初有의 풀이이며 〈促漏〉시의 '文'을 '雲'자로, 〈碧城〉시의 玉辟寒에서 '玉'을 '金'자로 표기함이 可當하다는 해석은 탁월하다.

둘째 詩語의 典故 考證에 있어서는 5개 항목을 기술하여 緻密한 근거資料를 제시하면서 중국에도 없는 해설을 하고 있다. 〈漢宮詞〉시에서 羅大經이 漢武帝 故

事の眞僞를 시험한다고 한 부분을 부정 한 것과 〈咸陽〉 시에서 天帝醉에 대한 語源을 최초로 구명한 것은 그 후의 明清代注本이 대개 추종하고 있다.

셋째 시의 主題에 있어서는 6개 항목을 서술하여 상당 부분은 기존의 주장들과는 차별된 설을 내놓고 있다. 〈嫦娥〉 시를 閨房의 恨을 담은 시라고 한 점이나 〈隋宮〉 시를 詠史詩로 평가한 점, 그리고 〈樂遊原〉 시를 客觀성은 적으나 기존 楊萬里가 唐의 衰亡을 풍자한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단지 저녁풍경을 노래한 感傷詩라고 주장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

《芝峰類說》文章部는 그 質量面으로 보아 韓中詩論을 비교하고 기여한다는 학술적 立場에서 중요한 자료이며 향후 이 자료 전체를 비교적인 각도에서 철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 | |
|----------|-----------------------------|
| 李晬光 | 《芝峰類說》韓國詩話叢編 第2冊 東西文化院 1989 |
| 洪萬宗 | 《詩話叢林》亞細亞文化社 1973 |
| | 《全唐詩》中華書局 1992 |
| 李商隱 | 《李義山詩集》四部叢刊初編 臺灣 商務印書館 1975 |
| 朱鶴齡 | 《李義山詩集箋注》北京大學圖書館藏 清代 |
| 陸昆曾 | 《李義山詩解》北京大學圖書館藏 清代 |
| 姚培謙 | 《李義山詩集箋注》北京大學圖書館藏 清代 |
| 程夢星 | 《重訂李義山詩集箋注》北京大學圖書館藏 清代 |
| 馮浩 | 《玉谿生詩集箋注》四部備要 臺灣 中華書局 1973 |
| 姜炳璋 | 《選玉谿生詩補說》北京大學圖書館藏 清代 |
| 劉學諧, 余恕誠 | 《李商隱詩歌集解》(全五冊) 中華書局 2004 |
| 楊家駱 主編 | 《全漢三國晉南北朝詩》臺灣 世界書局 1978 |
| 陳鐵民 校注 | 《王維集校注》中華書局 1997 |
| 嚴羽, 郭紹虞 | 《滄浪詩話校釋》正生書局 1973 |

- 張戒, 陳應鸞 校箋《歲寒堂詩話校箋》巴蜀書店 2000
- 辛文房, 傅璇琮 主編《唐才子傳校箋》中華書局 1995
- 高棟 《唐詩品彙》臺灣 藝文印書館 1973
- 仇兆鰲 《杜詩詳注》中華書局 1979
- 沈德潛 《唐詩別裁》臺灣 廣文書局 1975
- 何文煥 《歷代詩話》臺灣 藝文印書館 1971
- 丁仲祐 《續歷代詩話》臺灣 藝文印書館 1974
- 胡應麟 《詩藪》正筌書局 1975
- 王夫之 《清詩話》臺灣 明倫出版社 1971
- 陸侃汝 馮沅君 《中國詩史》臺灣 明倫出版社 1969
- 劉盼遂 《李義山錦瑟詩定詁》臺灣 學生書局 1971
- 劉學鍇 《李商隱詩歌研究》安徽大學出版社 1998
- 李日剛 《中國詩歌流變史》臺灣 文津出版社 1987
- 陳伯海 主編 《唐詩彙評》浙江教育出版社 1995
- 柳晟俊 《清詩話研究》國學資料院 1999
- 邱燮友 《新譯唐詩三百首》臺灣 三民書局 1973
- 李家源 《韓國漢文學史》民衆書館 1976
- 閔炳秀 《韓國漢詩史》太學社 1996
- 蔡鎮楚 《中國詩話史》湖南文藝出版社 1988
- 鄭健行 《韓國詩話中論中國詩資料選粹》中華書局 2002
- 房日晰 《唐詩比較論》三秦出版社 1998
- 杜松柏 《禪學與唐宋詩學》臺灣 黎明出版文化事業公司 1976
- 南晚星역 《芝峰類說》乙酉文化社 1976
- 朴守川 「芝峰類說 研究-文章部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93
- 문희순 「芝峰 李晬光의 審美批評 研究」 詩話學 제1집 1998. 8
- 鄭健行 「芝峰類說中解杜諸條舉隅析評」 順天鄉人文科學論叢 6집 1998. 8
- 陳甲坤 「芝峰類說의 杜詩批評 研究」 어문논총 32집 1998
- 全英蘭 「李晬光의 杜詩 註釋에 대한 評析」 人文科學研究 제15집 1996. 12
- 金周漢 「李晬光의 唐詩 小攷」 嶺南語文學 26집 1994. 12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ments for Li Shang Yin(李商隱)'s poetry of
《Ji Bong Yoo Shul(芝峰類說)》 volume 12 Literary Part(文章部)

Sung Joon Yoo

《Ji Bong Yoo Shul(芝峰類說)》 written by Li Shu Gwang(李晬光 1563-1629) is a great book preserving encyclopedic knowledge and price. His basic poetical consciousness was “to respect the poetry of Tang Dynasty and to reject the poetry of Song Dynasty(崇唐黜宋).” This book criticized Korean and Chinese poetry from the 9th volume to the 12th volume. The 9th volume of this book described the origin of Chinese poetry, prosody, and poetical comment etc, and after the 10th volume wrote the Chinese and Korean poetical character of many generations. Especially the 12th volume analyzed 22 Li Shang Yin(李商隱)'s poems in 26 articles, and I distinguished them to 3 special features:(1)the historical research of poetic word(15 articles), (2)the authentic precedent of poetic phrase(5 articles) and (3)the analysis of poetical theme(6 articles). I described these articles with the methodology mutually comparing with commentary books of Ming and Qing(明清) Dynasty, and I also emphasized the objectivity and originality of Li's poetics. For example, (1) the analysis of 'pu shao(蒲梢)' in <Wu Ling(茂陵)> and 'feng wun(風雲)' in <Chou Bi Yi(籌筆驛)> is very correct. (2) the interpretation for Han Wu Di(漢武帝)'s historical fact in <Han palace song(漢宮詞)> and etymology of '天帝醉' word in <Xian Yang(咸陽)> are his very excellent opinion. (3)Li Shu Gwang asserted that <Chang-e(嫦娥)> was a historical poem singing a grudge of a woman and <Le You Yuan(樂遊原)> did not satirize the fall of Tang Dynasty, but simply described a evening landscape.

Key words : Li Shu Guang(李晔光), Ji Bong Yoo Shul(芝峰類說), Li Shang Yin(李商隱),
historical research of poetic word, authentic precedent of poetic phrase

투 고 일 : 2008년 7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8월 15일